

التحقيق والإيضاح لكثير من مسائل
الحج والعمرة والزيارة على ضوء
الكتاب والسنة) للحرمين)

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하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핫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압둘 아지즈 빈 압둘라 빈 바즈
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핫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대학자이신 셰이크

압둘 아지즈 빈 압둘라 빈 바즈

저자 서문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며,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인 무함마드와 그의
모든 가족, 그리고 교우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은 핫즈와 그 우수성 및 예절, 핫즈를 위해 여행을 떠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 요약본입니다. 또한 핫즈, 우므라, 방문(지야라)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책(꾸란)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가 가리키는 바를 신중하게 살폈으며, 무슬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자 다음의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고자 이를 엮었습니다:

﴿وَذَكِّرْ فَإِنَّ الذِّكْرَى تَنْفَعُ الْمُؤْمِنِينَ 55﴾

그대는 떠올려 주라, 실로 떠올림은 믿는 자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앗-다리야트: 55], 그리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وَإِذْ أَخَذَ اللَّهُ مِيثَاقَ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لَتُبَيِّنُنَّهُ لِلنَّاسِ وَلَا تَكْتُمُونَهُ...﴾

하나님께서 성서를 받은 자들과 맹약을 맺으시며,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숨기지 말라 하셨느니라... [알

이므란: 187]. 그리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وَتَعَاوَنُوا عَلَى الْبِرِّ وَالتَّقْوَى...}

...선행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라... [알-마이다: 2].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쇄히흐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الَّذِينَ النَّصِيحَةُ، ثَلَاثًا، قِيلَ: لِمَنْ يَا رَسُولَ اللَّهِ؟ قَالَ: لِلَّهِ وَلِكِتَابِهِ وَلِرَسُولِهِ وَلِأَيِّمَةِ الْمُسْلِمِينَ وَعَامَّتِهِمْ».

«종교는 진심 어린 조언(나식하)입니다.»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묻자, «하나님과 그분의 책, 그분의 사도, 무슬림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무슬림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¹

¹ 무슬림 전승, 번호 (55).

알-따바라니가 후다이파를 통해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مَنْ لَمْ يَهْتَمَّ بِأَمْرِ الْمُسْلِمِينَ فَلَيْسَ مِنْهُمْ، وَمَنْ لَمْ يُصْبِحْ وَيُمْسِ نَاصِحًا لِلَّهِ وَلِرَسُولِهِ
وَلِكِتَابِهِ وَلِإِمَامِهِ وَلِعَامَّةِ الْمُسْلِمِينَ فَلَيْسَ مِنْهُمْ».

«무슬림들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며, 아침저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그분의 책, 무슬림 지도자, 그리고 일반
무슬림 대중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나식하)을
품지 않는 자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¹

저는 하나님께 이 책이 저와 무슬림들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노력이 오직 그분의
존귀한 얼굴만을 위한 순수한 것이 되기를, 나아가
축복의 천국에서 그분 곁의 승리를 얻는 원천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실로 그분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십니다.

¹ 알-따바라니 『알아우와뜨』 전승, 번호 (7469).

항목

햇즈와 우므라의 의무 및 신속한 수행에 대한 증거들

이 점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복들에게 그분의 성스러운 성전(바이트 알하람)으로 햇즈를 떠날 것을 의무로 삼으셨고, 이를 이슬람의 기둥 중 하나로 지정하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لِلَّهِ عَلَى النَّاسِ حُجُّ الْبَيْتِ مَنِ اسْتَطَاعَ إِلَيْهِ سَبِيلًا وَمَنْ كَفَرَ فَإِنَّ اللَّهَ غَنِيٌّ عَنِ الْعَالَمِينَ﴾

...그곳으로 갈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그 성전으로 햇즈를 수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나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느니라. [알 이므란: 97].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쇄히하인)에서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بُنِيَ الْإِسْلَامُ عَلَى خَمْسٍ: شَهَادَةِ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وَإِقَامِ الصَّلَاةِ، وَإِيتَاءِ الزَّكَاةِ، وَصَوْمِ رَمَضَانَ، وَحَجِّ بَيْتِ اللَّهِ الْحَرَامِ».

«이슬람은 다섯 가지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언, 예배(살라)의 확립, 의무 희사(자카)의 납부, 라마단 달의 단식(샤움), 그리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으로의 핫즈입니다.»¹

싸이드가 그의 수난에서 전하기를, 우마르 빈 알카뎅(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로 나는 이 여러 도시들에 사람들을 보내어,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핫즈를 수행하지 않은 자들을

¹ 알-부카리(8번), 무슬림(16번) 전승.

찾아내어 그들에게 인두세(지즈야)를 부과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슬림이 아닙니다."¹²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핫즈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자는 유대교인으로
죽든 기독교인으로 죽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³

핫즈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아직 수행하지 않은
자는 이를 서둘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تَعَجَّلُوا إِلَى الْحَجِّ - يَغْنِي الْفَرِيضَةَ - فَإِنَّ أَحَدَكُمْ لَا يَذْرِي مَا يَغْرَضُ لَهُ».

1 『자미의 알아하디스』 (31221번)에서는 이를 『수난 사이드 빈 만수르』
로 귀속시켰으나, 이용 가능한 판본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즉, 재정적인 여유.

3 앳-티르미디 전승, 번호 (812).

«의무로 지정된 핫즈를 서둘러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¹

또한 핫즈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즉시 실행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의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وَلِلَّهِ عَلَى النَّاسِ حُجُّ الْبَيْتِ مَنِ اسْتَطَاعَ إِلَيْهِ سَبِيلًا وَمَنْ كَفَرَ فَإِنَّ اللَّهَ غَنِيٌّ عَنِ الْعَالَمِينَ﴾

...그곳으로 갈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그 성전으로 핫즈를 수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나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느니라. [알 이므란: 97].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أَيُّهَا النَّاسُ، إِنَّ اللَّهَ قَرَضَ عَلَيْكُمُ الْحَجَّ فَحُجُّوا».

¹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1732).

«오 사람들이여, 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햇즈를 의무로 삼으셨으니 햇즈를 수행하십시오.»¹

우므라의 의무를 보여주는 하디스들도
전해지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브릴이 이슬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الإِسْلَامُ أَنْ تَ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وَتُقِيمَ الصَّلَاةَ، وَتُؤْتِيَ
الزَّكَاةَ، وَتَحُجَّ الْبَيْتَ وَتَعْتَمِرَ، وَتَغْتَسِلَ مِنَ الْجَنَابَةِ، وَتَتِمَّ الْوُضُوءَ، وَتَصُومَ
رَمَضَانَ»

«이슬람이란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증언하는 것,
예배(살라)를 확립하는 것, 의무 희사(자카)를 내는
것, 성전으로 햇즈와 우므라를 수행하는 것, 대불결
상태(자나바)에서 목욕을 하는 것, 세정(우두)을
온전히 마치는 것, 그리고 라마단 달에 단식하는
것입니다.»² 이븐 쿠자이마와 알-다라꾸뜨니가
우마르 빈 알카뎀(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¹ 무슬림 전승, 번호 (1337).

² 이븐 쿠자이마 전승, 번호 (1).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전하였으며, 알-다라꾸뜨니는 '이것은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승 경로(사나드 쇠히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의 하디스가 있습니다:

«يَا رَسُولَ اللَّهِ، هَلْ عَلَى النِّسَاءِ مِنْ جِهَادٍ؟ قَالَ: عَلَيْهِنَّ جِهَادٌ لَا قِتَالُ فِيهِ: الْحَجُّ وَالْعُمْرَةُ»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여성들에게도 분투(지하드)의 의무가 있습니까?»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전투가 없는 분투(지하드)가 있으니, 바로 핫즈와 우므라입니다.»¹ 아흐마드와 이븐 마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승 경로로 전했습니다.

핫즈와 우므라는 평생에 단 한 번만 의무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쇠히흐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الْحَجُّ مَرَّةً، فَمَنْ زَادَ فَهُوَ تَطَوُّعٌ».

¹ 알-부카리 전승, 번호 (1520).

«하즈는 한 번입니다. 그 이상 행하는 것은 자발적 경배입니다.»¹

자발적으로 하즈와 우므라를 많이 행하는 것은 순나입니다.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쇄히하인)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لْعُمْرَةُ إِلَى الْعُمْرَةِ كَفَّارَةٌ لِمَا بَيْنَهُمَا، وَالْحَجُّ الْمَبْرُورُ لَيْسَ لَهُ جَزَاءٌ إِلَّا الْجَنَّةُ.»
«한 번의 우므라에서 다음 우므라까지는 그사이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되며, 훌륭하게 완수된 하즈(하즈 마브루르)에 대한 보상은 오직 천국뿐입니다.»²

항목

죄로부터의 회개 의무와 부당함의 청산

무슬림이 하즈나 우므라를 위한 여행을 결심했다면, 가족과 교우들에게 영광스럽고

¹ 안-나싸이 전승, 번호 (2620).

² 알-부카리(1773번), 무슬림(1349번) 전승.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금지하신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을 돈과 값아야 할 빛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증인을 세워야 하며, 모든 죄에 대해 즉시 진실된 회개(타우바)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تُوبُوا إِلَى اللَّهِ جَمِيعًا أَيُّهُ الْمُؤْمِنُونَ لَعَلَّكُمْ تُفْلِحُونَ﴾

...오 믿는 자들이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안-누르: 31].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멈추고 버리는 것,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명예에 부당한 피해(마달림)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거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مَنْ كَانَتْ عِنْدَهُ مَظْلَمَةٌ لِأَخِيهِ مِنْ مَالٍ أَوْ عَرْضٍ فَلْيُحْلِلِ الْيَوْمَ قَبْلَ أَنْ لَا يَكُونَ دِينَارٌ وَلَا دِرْهَمٌ، إِنْ كَانَ لَهُ عَمَلٌ صَالِحٌ أُخِذَ مِنْهُ بِقَدَرٍ مَظْلَمَتِهِ، وَإِنْ لَمْ تَكُنْ لَهُ حَسَنَاتٌ أُخِذَ مِنْ سَيِّئَاتٍ صَاحِبِهِ فَحُمِلَ عَلَيْهِ».

«자신의 형제에게 재산이나 명예와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다면, 금화(디나르)도 은화(디르함)도 소용없게 될 날이 오기 전에 오늘 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 그에게 선행이 있다면 그가 입힌 피해만큼 차감될 것이요, 만약 그에게 선행이 없다면 상대방의 악행을 가져와 그에게 짊어지게 할 것입니다.»¹

하즈와 우므라를 위한 경비는 허용된(할랄) 재산에서 나온 깨끗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إِنَّ اللَّهَ تَعَالَى طَيِّبٌ لَا يَقْبَلُ إِلَّا طَيِّبًا».

«실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선한 것만을 받아들이십니다.»²

¹ 알-부카리 전승, 번호 (2449).

² 무슬림 전승, 번호 (1015).

알-따바라니가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إِذَا خَرَجَ الرَّجُلُ حَاجًّا بِنَفَقَةٍ طَيِّبَةٍ وَوَضَعَ رِجْلَهُ فِي الْعَرْزِ فَنَادَى: لَيْتَكَ اللَّهُمَّ
لَيْتَكَ، نَادَاهُ مُنَادٌ مِنَ السَّمَاءِ: لَيْتَكَ وَسَعْدَيْكَ، زَاذَكَ حَلَالٌ، وَرَاجِلُكَ حَلَالٌ، وَحُجَّتُكَ
مَبْرُورٌ غَيْرُ مَأْرُورٍ، وَإِذَا خَرَجَ الرَّجُلُ بِالنَّفَقَةِ الْخَبِيثَةِ فَوَضَعَ رِجْلَهُ فِي الْعَرْزِ
فَنَادَى: لَيْتَكَ اللَّهُمَّ لَيْتَكَ، نَادَاهُ مُنَادٌ مِنَ السَّمَاءِ: لَا لَيْتَكَ وَلَا سَعْدَيْكَ، زَاذَكَ حَرَامٌ،
وَنَفَقَتُكَ حَرَامٌ، وَحُجَّتُكَ غَيْرُ مَبْرُورٍ».

«사람이 깨끗한 경비를 지니고 핫즈를 떠나며
등자에 발을 올리고 '오 하나님 분부대로
왔나이다(랍바이칼 라흐마 랍바이크)'라고 외치면,
하늘에서 외치는 자가 '분부대로 왔으며 행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당신의 양식은 할랄이요, 당신의
탈것 또한 할랄이며, 당신의 핫즈는 훌륭히
완수되어 죄가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반면, 사람이
불결한 경비를 지니고 떠나며 등자에 발을 올리고
'오 하나님 분부대로 왔나이다(랍바이칼 라흐마
랍바이크)'라고 외치면, 하늘에서 외치는 자가
'분부대로 오지 않았으며 행복도 없도다. 당신의
양식은 하람이요, 당신의 경비 또한 하람이며,

당신의 핫즈는 훌륭히 완수되지 못했도다'라고 외칩니다.»¹

핫즈 순례자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مَنْ يَسْتَغْفِرُ اللَّهَ، وَمَنْ يَسْتَغْنِ يُغْنِهِ اللَّهُ».

«자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순결하게 하실 것이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²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ا يَزَالُ الرَّجُلُ يَسْأَلُ النَّاسَ حَتَّى يَأْتِيَ يَوْمَ الْقِيَامَةِ وَلَيْسَ فِي وَجْهِهِ مِرْعَةٌ لَحْمٍ».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걸하는 자는 부활의 날(야우물 끼야마)에 그의 얼굴에 살점 하나 남지 않은 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³

1 『알-카비르』에서 앓-타바라니 전승, 번호 (2989).

2 알-부카리(1427번), 무슬림(1035번) 전승.

3 알-부카리(1474번), 무슬림(4040번) 전승.

핫즈 순례자는 핫즈와 우므라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얼굴과 내세를 목표로 해야 하며, 그 숭고한 장소들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 해야 합니다. 핫즈를 통해 현세의 이익이나 물질,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나 명성, 자랑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추악한 목적이며, 행위가 헛수고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مَنْ كَانَ يُرِيدُ الْحَيَاةَ الدُّنْيَا وَزِينَتَهَا نُوَفِّ إِلَيْهِمْ أَعْمَالَهُمْ فِيهَا وَهُمْ فِيهَا لَا يُبْخَسُونَ﴾
 15 أُولَئِكَ الَّذِينَ لَيْسَ لَهُمْ فِي الْآخِرَةِ إِلَّا النَّارُ وَحَبِطَ مَا صَنَعُوا فِيهَا وَبَاطِلٌ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16﴾

현세의 삶과 그 화려함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러줄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세에서 불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자들이니라. 그들이 그곳(현세)에서 이론

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며,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리라. [후드: 15-16].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 كَانَ يُرِيدُ الْعَاجِلَةَ عَجَّلْنَا لَهُ فِيهَا مَا نَشَاءُ لِمَنْ نُرِيدُ ثُمَّ جَعَلْنَا لَهُ جَهَنَّمَ يَصْلَاهَا مَذْمُومًا مَدْحُورًا 18 وَمَنْ أَرَادَ الْآخِرَةَ وَسَعَىٰ لَهَا سَعْيَهَا وَهُوَ مُؤْمِنٌ فَأُولَٰئِكَ كَانَ سَعْيُهُمْ مَشْكُورًا 19﴾

누구든 속히 지나가는 현세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뜻하는 바를 그곳에서 서둘러 베풀어 줄 것이니라. 그런 다음 우리는 그를 위해 지옥(자한남)을 마련할 것이며, 그는 비난받고 쫓겨난 채 그곳에 들어가게 되리라.

반면, 내세를 바라고 믿음을 가진 채 그것을 위해 마땅히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노력은 감사히 여겨질 것이니라. [알이쓰라: 18-19].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قَالَ اللَّهُ تَعَالَى: أَنَا أَعْلَى الشُّرَكَاءِ عَنِ الشِّرْكِ، مَنْ عَمِلَ عَمَلًا أَشْرَكَ مَعِيَ فِيهِ غَيْرِي تَرَكْتُهُ وَشِرْكَهُ».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등한 대상들 중에서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을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이니라. 누구든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에 나 이외의 다른 것을 대등한 대상으로 삼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와 그가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을 모두 버릴 것이니라.'»¹

또한 여행 중에 순종과 경외심, 그리고 종교적 이해를 갖춘 훌륭한 사람들과 동행해야 하며, 어리석은 자들이나 타락한 자들과 동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핫즈와 우므라에서 규정된 사항들을 배우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올바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동물, 자동차, 비행기 등 탈것에 오를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미한 뒤, 타크비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를 세 번 외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¹ 무슬림 전승, 번호 (2985).

﴿...سُبْحَانَ الَّذِي سَخَّرَ لَنَا هَذَا وَمَا كُنَّا لَهُ مُقْرِنِينَ 13 وَإِنَّا إِلَىٰ رَبِّنَا لَمُنْقَلِبُونَ
﴿14﴾

...우리에게 이것을 복종시키신 분께 영광이
있기를. 우리는 이것을 다룰 능력이 없었노라.

그리고 실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앗-주흐루프: 13-14].

«اللَّهُمَّ إِنِّي أَسْأَلُكَ فِي سَفَرِي هَذَا الْبِرَّ وَالْتَّقْوَى، وَمِنَ الْعَمَلِ مَا تَرْضَى، اللَّهُمَّ هَوِّنْ عَلَيْنَا سَفَرَنَا هَذَا، وَاطْوِ عَنَّا بُعْدَهُ، اللَّهُمَّ أَنْتَ الصَّاحِبُ فِي السَّفَرِ، وَالْخَلِيفَةُ فِي الْأَهْلِ، اللَّهُمَّ إِنِّي أَعُوذُ بِكَ مِنْ وَعَثَاءِ السَّفَرِ، وَكَآبَةِ الْمُنْظَرِ، وَسَوْءِ الْمُنْقَلَبِ فِي الْمَالِ وَالْأَهْلِ»؛

«오 하나님, 실로 저는 이 여행에서 선행과
경외심을 구하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의 이 여행을 수월하게
하시고 그 먼 거리를 줄여 주소서. 오 하나님, 당신은
이 여행의 동반자이시며 가족들을 돌보시는
수호자이십니다. 오 하나님, 실로 저는 여행의
고단함, 우울한 광경, 그리고 재산과 가족에게
일어날 불행한 결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¹

¹ 무슬림 전승, 번호 (1342).

이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전해진 신뢰할 수 있는 전승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전했습니다.

여행 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 용서 구하기(이쓰티그파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기원하고 간절히 매달리기, 꾸란 낭송 및 그 의미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동 예배를 지키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자신과 무관한 일에 참견하는 것, 과도한 농담을 삼가며 혀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 험담, 이간질, 그리고 동행이나 다른 무슬림 형제들을 조롱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는 동행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지혜와 훌륭한 훈계로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해야 합니다.

항목

순례자가 미카트에 도착했을 때 행해야 할 일

미카트에 도착하면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흐람을 할 때 재봉된 옷을 벗고 목욕하셨다는 전승이 있으며,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쇄히하인)에서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كُنْتُ أَطِيبُ رَسُولَ اللَّهِ ﷺ لِإِحْرَامِهِ قَبْلَ أَنْ يُحْرَمَ، وَلِحَلِّهِ قَبْلَ أَنْ يَطُوفَ بِالْبَيْتِ»

«저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흐람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흐람을 위해 그분께 향을 발라 드렸고, 또한 이흐람에서 벗어나신 뒤 하나님의 집을 도는 의식을 하시기 전에 그분께 향을 발라 드렸습니다.»¹ 그리고 아이샤가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 상태에 들어간 뒤 생리를 하게 되었을 때,

¹ 알-부카리(1539번), 무슬림(1189번) 전승.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그녀에게 전신 세정을 하고 핫즈를 위한 이흐람에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아쓰마 빈트 우마이스가 둘홀라이파에서 출산했을 때, 목욕을 하고 천으로 감싼 뒤 이흐람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¹. 이는 여성이 미까트에 도착했을 때 월경 중인 여성이거나 산후 출혈 중인 여성일지라도, 목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흐람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아이샤와 아쓰마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제외하고 순례자가 하는 모든 의식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이흐람을 하려는 자는 콧수염, 손발톱, 음모, 그리고 겨드랑이 털을 다듬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흐람을 한 후에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므로,

¹ 무슬림 전승, 번호 (1218).

금지 상태에서 자를 필요가 없도록 미리 필요한 만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무슬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항상 다듬도록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لْفِطْرَةُ خَمْسٌ: الْحِثَانُ، وَالْإِسْتِحْدَادُ، وَقَصُّ الشَّارِبِ، وَقَلَمُ الْأُظْفَارِ، وَتَنْفِثُ الْإِبْطِ».

«인간의 본성(피뜨라)은 다섯 가지입니다: 할레, 음모 깎기, 콧수염 자르기, 손발톱 깎기, 그리고 겨드랑이 털 뽑기입니다.»¹

『쇄히흐 무슬림』에서 아나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하기를:

«وَقَتْنَا فِي قَصِّ الشَّارِبِ، وَقَلَمِ الْأُظْفَارِ، وَتَنْفِثِ الْإِبْطِ، وَحَلْقِ الْعَانَةِ: أَنْ لَا نَتْرَكَ ذَلِكَ أَكْثَرَ مِنْ أَرْبَعِينَ لَيْلَةً».

¹ 알-부카리(5891번), 무슬림(257번) 전승.

«콧수염 자르기, 손발톱 깎기, 겨드랑이 털 뽑기, 음모 깎기에 대해 우리에게 기한이 정해졌으니, 이를 40일 밤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¹

안-나싸이는 다음 문구로 전했습니다:

«وَقَدْ لَنَا رَسُولُ اللَّهِ ﷺ»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우리에게 기한을 정해주셨습니다.»² 아흐마드, 아부 다우드, 그리고 앳-티르미디도 안-나싸이와 동일한 문구로 전했습니다. 한편 머리카락의 경우, 이흐람 시 남성과 여성 모두 조금이라도 자르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염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밀거나 일부라도 자르는 것은 금지됩니다. 오히려 이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쇄히하인)에서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¹ 무슬림 전승, 번호 (258).

² 안-나싸이 전승, 번호 (14).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خَالِفُوا الْمُشْرِكِينَ، وَقِرُوا اللَّحَى، وَأَحْفُوا الشَّوَارِبَ».

«다신교도들과 다르게 행하십시오. 수염은 길게 기르고, 콧수염은 짧게 깎으십시오.»¹ 무슬림이 그의 『쇄히흐』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جُزُوا الشَّوَارِبَ، وَأَرْحُوا اللَّحَى، خَالِفُوا الْمَجُوسَ».

«콧수염을 짧게 다듬고, 수염은 늘어뜨리십시오. 마주쓰(조로아스터교도)들과 다르게 행하십시오.»²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나를 위반하고 수염 기르는 것을 반대하며 불신자나 여성과 닮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크나큰 재난이

¹ 알-부카리(2892번), 무슬림(259번) 전승.

² 무슬림 전승, 번호 (260).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문과 교육에 종사한다고 자처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실로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무슬림들을 순나에 부합하고 이를 굳게 지키며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대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며 그분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 남성은 하의(이자르)와 상의(리다)를 입으며, 깨끗한 하얀색인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샌들을 신고 이흐람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لْيُجَرِّمَ أَحَدُكُمْ فِي إِزَارٍ وَرِدَاءٍ وَنَعْلَيْنِ، فَإِنْ لَمْ يَجِدْ نَعْلَيْنِ فَلْيَلْبَسْ خُفَيْنِ وَلْيَقْطَعْهُمَا حَتَّى يَكُونَ أَسْفَلَ مِنَ الْكَعْبَيْنِ»

«여러분 각자는 하의와 상의, 그리고 두
짝의 샌들을 착용한 상태로 이흐람을 하십시오.
만약 신생들이 없다면 가족 양말(쿠프)을 신고
그것을 복숭아뼈 아래로 오도록 잘라내십시오.»¹
이맘 아흐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전승.

여성의 경우 남성의 복장을 모방하는 것만
주의한다면, 검은색이든 초록색이든 그 외의
색이든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이흐람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이흐람 중에는 니깁(눈만
내놓는 얼굴 가리개)과 장갑을 낄 수 없으며,
니깁과 장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얼굴과 손을
가려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흐람을 한 여성에게
니깁과 장갑 착용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중이 여성의 이흐람 복장으로 초록색이나
검은색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¹ 무슬림 전승, 번호 (1177).

목욕과 정돈을 마치고 이흐람 복장을 입은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핫즈나 우므라의 순례(누쭈크)에 진입하겠다는 의도(니아)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إِنَّمَا الْأَعْمَالُ بِالنِّيَّاتِ، وَإِنَّمَا لِكُلِّ امْرِئٍ مَا نَوَى».

«모든 행위는 의도에 달려 있으며, 실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얻게 됩니다.»¹

그리고 그 의도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므라를 의도했다면 "우므라로 분부대로 왔습니다(랍바이카 우므라탄)" 또는 "오 하나님 우므라로 분부대로 왔습니다(알라훤마 랍바이카 우므라탄)"라고 말하고, 핫즈를 의도했다면 "핫즈로 분부대로 왔습니다(랍바이카 핫잔)" 또는 "오 하나님 핫즈로 분부대로 왔습니다(알라훤마 랍바이카 핫잔)"라고 말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¹ 알-부카리(1번), 무슬림(1907번) 전승.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둘을 동시에 의도했다면 "오 하나님 우므라와 핫즈로 분부대로 왔습니다(알라훔마 랍바이카 우므라탄 와 핫잔)"라고 탈비야를 읊습니다. 이러한 말은 동물이나 자동차 등 자신의 탈것에 올라탄 뒤에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도 낙타 위에 올라탄 뒤 미까트에서 이동을 시작하시며 소리 내어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견해 중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오직 이흐람에만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전해진 바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배나 따와프 등 다른 행위에 있어서는 의도를 소리 내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려고 의도했습니다'라거나

'나는 이런 따와프를 하려고 의도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단(비드아)이며,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더욱 추악하고 죄가 큰 행동입니다. 만약 의도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된 것이었다면,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를 명시하시고 당신의 행동이나 말씀으로 공동체(우마)에 명확히 밝히셨을 것이며, 훌륭한 선조들(살라프 아샤리흐)이 먼저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나 그의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로부터 그런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이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شَرُّ الْأُمُورِ مُحَدَّثَاتُهَا، وَكُلُّ بِدْعَةٍ ضَلَالَةٌ»

«가장 악한 일은 종교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단(비드아)인 것이며, 모든 이단(비드아)은 방향입니다.»¹ 무슬림이 그의 쇠히흐에서 전승,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 أَحْدَثَ فِي أَمْرِنَا هَذَا مَا لَيْسَ مِنْهُ فَهُوَ رَدٌّ»

«우리의 이 종교(일)에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자의 행위는 거부될 것입니다.»² 그 정확성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전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مَنْ عَمِلَ عَمَلًا لَيْسَ عَلَيْهِ أَمْرُنَا فَهُوَ رَدٌّ».

«우리의 명령(종교)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의 행위는 거부될 것입니다.»³

항목

장소적 미까트와 그 지정에 대하여

미까트는 다섯 곳입니다:

¹ 무슬림 전승, 번호 (867).

² 알-부카리(2697번), 무슬림(1718번) 전승.

³ 알-부카리(2550번), 무슬림(1718번) 전승.

첫째: 둘홀라이파입니다. 이곳은 마디나 사람들의 미까트이며,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아비야르 알리로 불립니다.

둘째: 알주흐파입니다. 이곳은 삼 사람들의 미까트이며, 라비그에 인접한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라비그에서 이흐람을 맺으며, 라비그에서 이흐람을 맺은 자는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맺은 것입니다. 라비그가 알주흐파보다 조금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까른 알마나질입니다. 이곳은 나즈드 사람들의 미까트이며, 오늘날 앓싸일로 불립니다.

넷째: 알람람입니다. 이곳은 예멘 사람들의 미까트입니다.

다섯째: 다트 이르끄입니다. 이곳은 이라크 사람들의 미까트입니다.

이러한 미까트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우리가 언급한 자들, 그리고 핫즈나 우므라를 의도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서 이흐람을 맺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육로로 지나가든 항로로 지나가든 핫즈나 우므라를 원하여 마카로 향하는 자가 이흐람 없이 그곳을 지나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 미까트들을 지정하시며 하신 다음의 일반적인 말씀 때문입니다:

«هُنَّ لَهُنَّ، وَلَمْ يَأْتِ عَلَيْهِنَّ مِنْ غَيْرِ أَهْلِهِنَّ، مِمَّنْ أَرَادَ الْحَجَّ وَالْعُمْرَةَ.»

«그곳들은 해당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핫즈와 우므라를 의도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¹

핫즈나 우므라를 목적으로 항로를 통해 마카로 향하는 자에게 규정된 것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목욕 등을 통해 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까트에 가까워지면 하의와 상의를 입고, 시간이

¹ 알-부카리(1524번), 무슬림(1181번) 전승.

넉넉하다면 우므라를 위한 탈비야를 외치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핫즈를 위한 탈비야를 외칩니다. 탑승하기 전이나 미까트에 가까워지기 전에 하의와 상의를 입는 것은 무방하나, 미까트와 나란히 위치하거나 그곳에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순례 의식에 진입할 의도를 품거나 탈비야를 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오직 미까트에서만 이흐람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다른 모든 일들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는 것은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قَدْ كَانَ لَكُمْ فِي رَسُولِ اللَّهِ أُسْوَةٌ حَسَنَةٌ...)

실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도 안에 훌륭한 본보기가 있노라... [알-아흐잡: 21].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고별 핫즈(핫자툴 와다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خُذُوا عَلَيَّ مَنَاسِكُكُمْ».

«나로부터 여러분의 순례 의식(마나씨크)을 배우십시오.»¹

마카로 향하되 핫즈나 우므라를 의도하지 않은 자, 예를 들어 상인, 나무꾼, 우편 배달부 등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이흐람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미까트를 언급하시며 앞선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هُنَّ لَهُنَّ، وَلِمَنْ أَتَى عَلَيْهِنَّ مِنْ غَيْرِ أَهْلِهِنَّ، مِمَّنْ أَرَادَ الْحَجَّ وَالْعُمْرَةَ،

«그곳들은 해당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핫즈와 우므라를 의도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²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미까트를 지나가더라도 핫즈나

¹ 무슬림 전승, 번호 (1297).

²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우므라를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흐람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이자 그들을 위한 수월함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마카 정복의 해에 마카에 오셨을 때 이흐람을 하지 않으시고 머리에 투구를 쓴 채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분께서는 핫즈나 우므라를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카를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는 우상숭배(쉬르크)를 제거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주지가 미까트 안쪽에 있는 자, 예를 들어 지다, 움뭇쌀람, 바흐라, 아쉬샤라이으, 바드르, 마쓰투라 등과 같은 곳의 주민들은 앞서 언급된 다섯 곳의 미까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주지가 곧 그들의 미까트가 되며,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핫즈나 우므라로 이흐람을

맺습니다. 만약 미까트 바깥에 또 다른 거주지가 있다면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원한다면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맺을 수도 있고, 미까트보다 마카에 더 가까운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흐람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미까트를 언급하시며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하신 다음의 일반적인 말씀 때문입니다:

«فَمَنْ كَانَ دُونَهُنَّ، فَمَهْلُهُ مِنْ أَهْلِهِ، وَكَذَلِكَ حَتَّى أَهْلُ مَكَّةَ يُهْلُونَ مِنْ مَكَّةَ»

«그 안쪽에 있는 자는 자신의 집에서 이흐람을 시작하고, 심지어 마카 사람들조차 마카에서 이흐람을 시작합니다.»¹² 알-부카리와 무슬림 전승.

하지만 하람(성역) 구역 안에 있으면서 우므라를 의도한 자는 힐(하람 밖의 구역)로 나가서 그곳에서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을 맺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¹ 이전 하디스의 일부.

² 무할루후(이흐람을 시작하고 탈비야를 외치는 곳): 즉, 자신의 이흐람 장소에서 탈비야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푸시길)께서는 아이샤가 우므라를 요청했을 때, 그녀의 오빠인 압두르라흐만에게 그녀를 데리고 힐로 나가서 그곳에서 이흐람을 맺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므라를 수행하는 자가 하람 구역 안에서 우므라 이흐람을 맺지 않고, 반드시 힐에서 맺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하디스는 앞서 언급된 이븐 압바쓰의 하디스를 구체화하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다음 말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حَتَّى أَهْلُ مَكَّةَ يَهْلُونَ مِنْ مَكَّةَ»،

«심지어 마카 사람들조차 마카에서 이흐람을 시작합니다.»¹ 이 말씀은 우므라가 아닌 핫즈의 이흐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람 안에서 우므라의 이흐람을 맺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 것이며 그녀에게 힐로 나가는 수고를 지우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¹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며, 대다수 학자들(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하디스를 모두 실천하는 것이므로 믿는 자에게 더 안전한 길입니다.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부 사람들이 핫즈 전에 이미 우므라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핫즈 이후에 탄이임이나 알지으라나 등에서 이흐람을 맺어 우므라를 반복하는 것은 율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들은 이를 지양하는 것이 더 좋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의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은 핫즈를 마친 후 우므라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샤만이 탄이임에서 우므라를 수행했는데, 이는 그녀가 월경으로 인해 마카에 입성할 당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므라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맺었던 우므라를 대신하여 우므라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요청하였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를 승낙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핫즈와 함께 수행한 우므라와 이번 단독 우므라, 두 번의 우므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샤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라면 핫즈를 마친 후 우므라를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모든 증거를 실천하고 무슬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순례자들이 메카에 들어올 때 행한 소순례 외에 대순례를 마친 후 또 다른 소순례를 실시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며, 많은 혼잡과 사고를 유발한다. 더욱이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가르침과 순나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항목

핫즈의 달이 아닌 시기에 미까트에 도착한

자의 규정

미까트에 도착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음을 아십시오:

첫째, 라마단이나 샤으반처럼 핫즈의 달이 아닌 시기에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에게 규정된 순나는 우므라로 이흐람을 맺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를 의도하고 입으로 소리 내어 "우므라로 분부대로 왔나이다(랍바이카 우므라탄)" 또는 "오 하나님 우므라로 분부대로 왔나이다(알라흐마 랍바이카 우므라탄)"라고 말한 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탈비야를 외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لَبَّيْكَ اللَّهُمَّ لَبَّيْكَ، لَبَّيْكَ لَا شَرِيكَ لَكَ لَبَّيْكَ، إِنَّ الْحَمْدَ وَالنِّعْمَةَ لَكَ وَالْمُلْكُ، لَا شَرِيكَ لَكَ».

«오 하나님 분부대로 왔나이다. 분부대로 왔나이다. 당신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으며

분부대로 왔나이다. 실로 찬미와 은혜와 주권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께서는 대등한 대상이 없나이다(랍바이칼 라훤마 랍바이크 랍바이카 라샤리카 라카 랍바이크 인날 함다 완니으마타 라카 왈물크 라 샤리카 라크).¹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이 탈비야를 많이 외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을 많이 합니다. 성전에 도착하면 탈비야를 멈추고 성전을 7바퀴 도는 따와프를 한 뒤, 마감 뒤에서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앓쇄파로 나가서 앓쇄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7바퀴 도는 싸으이를 합니다. 이후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면 그의 우므라가 완료되며,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둘째, 핫즈의 달에 미까트에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핫즈의 달은 샤우왈, 둘까으다, 그리고 둘히자 달의 첫 열흘입니다.

¹ 알-부카리(1549번), 무슬림(1184번) 전승.

이런 자에게는 단독 핫즈, 단독 우므라, 그리고
 이 둘의 결합이라는 세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고별 핫즈 당시 들까오다 달에
 미까트에 도착하셨을 때, 교우들에게 이 세 가지
 순례 방식(누쭈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생 제물(하디)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도 역시 우므라로 이흐람을
 맺고, 앞서 핫즈의 달이 아닌 시기에 미까트에
 도착한 자의 규정에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수행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교우들이
 마카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의 이흐람을 우므라로
 바꾸도록 명령하셨고, 마카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와프와 싸으이를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이흐람을 해제했습니다. 단,
 희생 제물을 동반한 자는 예외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희생 제를 바치는 날(야우문 나흐르)에 해제할 때까지 이흐람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의 순나는 핫즈와 우므라를 동시에 이흐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였고 당시 희생 제물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께서는 교우들 중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로서 이미 우므라로 이흐람을 맺은 이들에게, 우므라와 함께 핫즈를 위한 탈비야를 외치고 희생 제를 바치는 날에 두 가지 모두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가 단독 핫즈로 이흐람을 맺었더라도, 두 가지를 결합한 자(까린)와 마찬가지로 희생 제를 바치는 날 해제할 때까지 이흐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 핫즈나 핫즈와 우므라 결합으로 이흐람을 맺었으나 희생

제물이 없는 자는 이흐람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흐람을 우므라로 바꾸어 따와프와 싸으이를 하고 머리를 자른 뒤 해제하는 것이 그에게 규정된 순나입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오지 않은 교우들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늦게 도착하여 이로 인해 핫즈를 놓칠까 두려운 상황이라면 이흐람 상태를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이흐람을 맺은 자가 질병이나 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순례 의식을 완수하지 못할까 두렵다면, 이흐람을 할 때 "만약 어떤 장애물이 저를 막는다면, 저의 해제 장소는 당신께서 저를 멈추게 하신 바로 그곳입니다(파인 하바싸니 하비쑤 파마힐리 하이쑤 하바쓰따니)"라고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두바아 빈트 앓-주바이르(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실로 저는 핫즈를 원하지만 몸이 아픕니다." 그러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حُجِّي وَاشْتَرِطِي أَنْ مَحِلِّي حَيْثُ حَبَسْتَنِي»

«핫즈를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저의 해제 장소는 당신께서 저를 멈추게 하신 바로 그곳입니다'라는 조건을 다십시오.»¹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이 조건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흐람을 맺은 자에게 질병이나 적의 방해 등 순례 완수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게는 어떠한 속죄의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¹ 알-부카리(5089번), 무슬림(1207번) 전승.

항목

어린이의 핫즈가 이슬람의 의무 핫즈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어린 소년과 소녀의 핫즈는 유효합니다. 『쇄히흐 무슬림』에서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한 여성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어린아이를 들어 올리며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이 아이에게도 핫즈가 성립됩니까?"라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نَعَمْ، وَلَكَ أَجْرٌ».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보상이 있습니다.»¹

『쇄히흐 알-부카리』에서 앓싸입 빈 야지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곱 살이었을 때, 사람들은

¹ 무슬림 전승, 번호 (1336).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핫즈를 수행했습니다.»¹ 하지만 이 핫즈가 아이들의 이슬람 의무 핫즈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노예 신분의 남성과 여성 역시 핫즈가 유효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이슬람 의무 핫즈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أَيُّمَا صَبِيٍّ حَجَّ، ثُمَّ بَلَغَ الْجُنُثَ، فَعَلَيْهِ أَنْ يَحُجَّ حَجَّةً أُخْرَى، وَأَيُّمَا عَبْدٍ حَجَّ، ثُمَّ أُعْتِقَ، فَعَلَيْهِ حَجَّةٌ أُخْرَى»

«어떤 소년이든 핫즈를 한 후 성년에 이르면 그는 다시 핫즈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노예든 핫즈를 한 후 해방되면 그는 다시 핫즈를 수행해야 합니다.»² 이븐 아비 샤이바와

¹ 알-부카리 전승, 번호 (1858).

² 이븐 아비 샤이바(4권/444) 전승.

알바이하끼가 흘륭한(하싼) 전승 경로로 전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그를 대신해 이흐람을 의도합니다. 아이의 재봉된 옷을 벗기고 그를 대신해 탈비야를 외치면, 아이는 그로 인해 이흐람 상태가 되며, 이흐람을 한 성인 남성에게 금지된 것들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녀 역시 보호자가 그녀를 대신해 이흐람을 의도하고 탈비야를 외칩니다. 그러면 그녀는 이흐람 상태가 되며, 이흐람을 한 성인 여성에게 금지된 것들이 그녀에게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이 아이들이 따와프를 할 때는 옷과 몸이 깨끗한 상태(타하라)여야 합니다. 따와프는 살라와 유사하며, 청결은 그 유효성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소년과 소녀가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되었다면,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스스로 이흐람을 맺고 이흐람 시 성인이 하는 것과 같이 목욕과 향수

바르기 등을 직접 수행합니다. 이들의 일과 이익을 관리하는 보호자는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다른 누구이든 무관합니다. 돌 던지기 등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식은 보호자가 대신 수행하며, 그 외의 다른 의식들, 즉 아라파에 머무는 것, 미나와 무즈달리파에서 밤을 보내는 것, 따와프와 싸으이 등은 아이들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따와프와 싸으이를 직접 할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업힌 채로 따와프와 싸으이를 합니다. 아이를 업고 도는 자는 자신과 아이의 따와프와 싸으이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따와프와 싸으이를 의도하여 수행한 뒤, 자신을 위한 독립적인 따와프와 독립적인 싸으이를 따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예배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다음의 성스러운 하디스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دَعَّ مَا يَرِيئُكَ إِلَى مَا لَا يَرِيئُكَ».

«의심스러운 것은 버리고 의심스럽지 않은 것을 취하십시오.»¹ 다만, 업은 자가 자신과 업힌 아이 모두를 위해 한 번의 따와프를 의도했다 하더라도, 학자들의 가장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아이의 핫즈에 대해 질문한 여성에게 아이를 위해 단독으로 따와프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의무였다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명백히 밝히셨을 것입니다.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소년과 소녀는 이흐람을 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따와프를 시작하기 전에 하다스(불결 상태)와 나자쓰(불결한 물질)로부터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받습니다. 보호자가 어린 소년과 소녀를 대신해 이흐람을 맺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자발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행하면 그에게 보상이 따르고, 행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¹ 앓-티르미디 전승, 번호 (2518).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항목

이흐람 시 금지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

이흐람을 의도한 후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을 조금이라도 자르거나 향수를 바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셔츠처럼 신체 구조에 맞게 재단되고 꿰매어진 재봉된 옷을 전체적으로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러닝셔츠, 바지, 가죽 양말, 양말처럼 신체의 일부를 감싸는 재봉된 옷을 입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지를 입는 것이 허용되며, 샌들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르지 않고 가죽 양말을 신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에 확증된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نْ لَمْ يَجِدْ نَعْلَيْنِ، فَلْيَلْبَسْ خُفَّيْنِ، وَمَنْ لَمْ يَجِدْ إِزَارًا، فَلْيَلْبَسْ سَرَائِلَ».

"«샌들을 구하지 못한 자는 가죽 양말(쿠프)을
신고, 하의(이자르)를 구하지 못한 자는 바지를
입으라»¹."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샌달이 없어 가죽 양말을
신어야 할 때 그것을 자르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된 규정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마디나에서
이흐람을 맺은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렇게 명령하셨으나, 훗날
아라파트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는 샌들이
없을 때 가죽 양말을 신도록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자르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에는 마디나에서의 답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하디스학과 율법학

¹ 알-부카리(1841번), 무슬림(1179번) 전승.

원리에 알려진 바와 같이, 필요한 시기에 설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르라는 명령이 취소되었음이 입증됩니다. 만약 그것이 의무였다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반드시 밝히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이흐람을 맺은 자가 복숭아뼈 아래로 내려오는 짧은 가죽 양말을 신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샌들과 같은 종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의를 매듭짓거나 끈 등으로 묶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부드럽고 가볍게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고 굵는 것은 허용되며,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더라도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흐람을 맺은 여성은 부르까으나 니갑처럼 얼굴을 위한 재봉된 옷을 입거나, 장갑처럼 손을 위한 재봉된 옷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لَا تَتَّقِبِ الْمَرْأَةُ الْمُحْرَمَةَ، وَلَا تَلْبَسِ الْقَفَّازِينَ»

«이흐람 상태의 여성은 니갑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장갑을 끼셔도 안 됩니다.»¹ 알-부카리 전승.
장갑이란 양모나 면 등으로 손의 크기에 맞게
 꿰매거나 짠 것을 말합니다.

여성에게는 그 외의 재봉된 옷들, 즉 셔츠, 바지,
가죽 양말, 일반 양말 등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키마르(베일)를 머리띠 없이
얼굴 위로 늘어뜨리는 것도
허용되며, 키마르(베일)이 그녀의 얼굴에 닿더라도
죄가 없습니다. 이는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이흐람 상태로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있을 때, 기마병들이 우리 곁을

¹ 알-부카리 전승, 번호 (1838).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나란히 지나갈 때면 우리 각자는 겉옷을 머리에서 얼굴로 늘어뜨렸고,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¹ 아부 다우드와 이븐 마자가 전했으며, 알-다라꾸뜨니도 움무 쌀라마의 하디스를 통해 이와 유사하게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이나 다른 것으로 손을 가리는 것도 무방합니다. 외간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을 가려야 합니다. 그것은 가려야 할 신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لَا يُبْدِينَ زِينَتَهُنَّ إِلَّا لِبُعُولَتِهِنَّ...}

...남편들 앞이 아니면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말게 하라... [안-누르: 31]. 얼굴과 손이 가장 큰 아름다움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¹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1833).

특히 얼굴은 더욱 강하고 중대한 부위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إِذَا سَأَلْتُمُوهُنَّ مَتَاعًا فَاسْأَلُوهُنَّ مِنْ وَرَاءِ حِجَابٍ ذَلِكُمْ أَطْهَرُ لِقُلُوبِكُمْ وَقُلُوبِهِنَّ...﴾

...너희가 그녀들에게 물건을 요구할 일이
있거든 휘장 너머로 요구하라. 그것이 너희의
마음과 그녀들의 마음을 더 순결하게 하느니라...
[알-아흐잡: 53].

키마르(베일)가 얼굴에 닿지 않도록 그 아래에
머리띠를 두르는 많은 여성들의 관행은 우리가
아는 한 율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규정된 것이었다면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공동체에게
밝히셨을 것이며, 이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흐람을 한 남성과 여성 모두 더러워진 이흐람
옷을 세탁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도 허용됩니다.

자파란이나 와르쓰가 묻은 옷을 입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이를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흐람을 한 자는 의무적으로 추잡한 언행과
악행,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الْحَجُّ أَشْهُرٌ مَّعْلُومَاتٌ فَمَنْ فَرَضَ فِيهِنَّ الْحَجَّ فَلَا رَفَثَ وَلَا فُسُوقَ وَلَا جِدَالَ فِي
الْحَجِّ...﴾

하즈는 정해진 달들에 있나니, 이 달들 안에
하즈를 수행하기로 작정한 자는 하즈 기간 동안
어떠한 성관계도, 악행도, 논쟁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알-바까라: 197].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مَنْ حَجَّ، فَلَمْ يَرْفُثْ، وَلَمْ يَفْسُقْ، رَجَعَ كَيَوْمِ وَلَدَتْهُ أُمُّهُ».

«누구든 하즈를 수행하며 성관계를 맺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자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던 날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¹ 라파스란 성관계, 그리고 추잡한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푸쑤끄란 죄악을 뜻하며, 지달이란 거짓된 것을 위한 다툼이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논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드러내고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식으로 논쟁하는 것은 무방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ادْعُ إِلَى سَبِيلِ رَبِّكَ بِالْحُكْمَةِ وَالْمَوْعِظَةِ الْحَسَنَةِ وَجَادِلْهُمْ بِالَّتِي هِيَ أَحْسَنُ...﴾

지혜와 훌륭한 설교로 사람들을 너의 주님의 길로 부르라. 그리고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그들과 논쟁하라... [안-나훔: 125].

이흐람을 한 남성은 머리에 밀착되는 것, 즉 따끼야(모자), 구트라, 이마마(터번) 등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금지되며,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이는 아라파의 날에 자신의 탈것에서 떨어져 사망한 자에 대해

¹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알-부카리(1521번) 및 무슬림(1350번) 전승.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اغْسِلُوهُ بِمَاءٍ وَسِدْرٍ، وَكَفِّوْهُ فِي ثَوْبَيْهِ، وَلَا تُخَمِّرُوا رَأْسَهُ، وَلَا وَجْهَهُ، فَإِنَّهُ يُبْعَثُ يَوْمَ الْقِيَامَةِ مُلْتَبِّيًا»

«그를 물과 씨드르(연꽃잎)로 씻기고, 그가 입고 있던 두 벌의 옷으로 수의를 입히십시오. 그의 머리와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실로 그는 부활의 날에 탈비야를 외치며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¹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이것은 무슬림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지붕이나 양산 등으로 그들을 가리는 것은 텐트나 나무로 그들을 가리는 것처럼 무방합니다. 쇠히흐(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확증된 바에 따르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자므라툼 아까바에 돌을 던지실 때 옷으로 그들을 가려주셨기

¹ 알-부카리(1521번), 무슬림(1350번) 전승.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해 나미라에 천막이 세워졌고, 아라파의 날 해가 정오를 지날 때까지 그 아래에 머무르셨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전승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흐람을 한 남성과 여성은 육상 동물을 사냥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 그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쫓아내는 행위, 혼인 계약, 성관계, 여성에게 청혼하는 것, 성욕을 품고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우스만(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ا يَنْكِحُ الْمُحْرَمُ وَلَا يُنْكَحُ وَلَا يَخْطُبُ»

«이흐람을 한 자는 혼인하지 않고, 혼인시키지도 않으며, 청혼하지도 않습니다.»¹ 무슬림 전승.

¹ 무슬림 전승, 번호 (1409).

이흐람을 한 자가 깜빡하거나 몰라서 재봉된 옷을 입었거나, 머리를 가렸거나, 향수를 발랐다면 그에게는 피디아(속죄의 대가)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억이 나거나 알게 된 즉시 그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깜빡하거나 몰라서 머리를 깎았거나, 머리카락을 조금 잘랐거나, 손발톱을 깎은 자 역시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무슬림은 이흐람을 했든 하지 않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람(성역) 구역의 동물을 사냥하거나 도구나 수신포 등으로 사냥을 돕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것을 쫓아내는 것도 금지되며, 하람 구역의 나무나 푸른 식물을 자르는 것, 주인을 찾아주려는 자가 아니면 분실물을 줍는 것도 금지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فَإِنَّ هَذَا الْبَلَدَ - بَعْثَنِي مَكَّةَ - حَرَامٌ بِحُرْمَةِ اللَّهِ إِلَى يَوْمِ الْقِيَامَةِ، لَا يُعَصَّدُ شَوْكُهُ، وَلَا يُنْفَرُ صَيْدُهُ، وَلَا يُلْقَطُ لُقْطَتُهُ إِلَّا مَنْ عَرَفَهَا، وَلَا يُخْتَلَى خِلَاهَا»

«실로 이 도시는, 즉 마카는 부활의 날까지 하나님의 신성함으로 인해 신성한 곳입니다. 그곳의 가시나무를 베어내서는 안 되며, 그곳의 동물을 쫓아내서도 안 되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자가 아니면 그곳의 분실물을 주워서도 안 되며, 그곳의 생풀(칼라)을 베어서도 안 됩니다.»¹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주인을 찾아주려는 자(알문쉬드)란 분실물을 널리 알리는 자(알무아르리프)를 뜻하며, 칼라란 축축한 생풀을 뜻합니다. 미나와 무즈달리파는 하람(성역) 구역에 속하지만, 아라파는 힐(하람 밖의 구역)에 속합니다.

¹ 알-부카리(1834번), 무슬림(1353번) 전승.

항목

마카 입성 시 핫즈 순례자가 해야 할 일과 알마쓰지드 알하람에 들어간 후 따와프 및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

이흐람을 한 자가 마카에 도착하면 입성하기 전에 목욕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알마쓰지드 알하람에 도착하면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 것이 순나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도에게 살라와 쌀람이 있기를. 저는 위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존귀한 얼굴(와즈흐), 그분의 영원한 권능에 의지하여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자비의 문을 열어주소서(비쓰밀라 왓살라투 왓쌀라무 알라 라쉴릴라 아우두 빌라힐 아딤 와비와즈히힐 카림 와쉴따니힐 까딤 미낏샤이따니르 라짐

알라훔마프타흐 리 아브와바 라흐마티카)." 이는 다른 모든 성원(마쓰지드)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말하며, 제가 아는 한 알마쓰지드 알하람 입장만을 위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확증된 특별한 찬양(디크르)은 없습니다.

카오바에 도착하면 타맛투으를 하는 자이거나 우므라를 수행하는 자일 경우 따와프를 시작하기 전에 탈비야를 멈춥니다. 그런 다음 알하자르 알아쓰와드(검은 돌)로 향하여 그것을 마주 보고, 오른손으로 만진 뒤 가능하다면 입을 맞춥니다. 혼잡을 빔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돌을 만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비쓰밀라 왈라후 아크바르)" 또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입을 맞추기 어렵다면 손이나 지팡이 등으로 그것을 만지고, 만진 그 물건에 입을 맞춥니다. 만약 만지는 것조차 어렵다면 그것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되, 수신호를 보낸 손이나 물건에 입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따와프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와프를 하는 자는 크고 작은 하다스(불결 상태)로부터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와프는 살라와 유사하나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점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와프를 할 때는 성전이 자신의 왼쪽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따와프를 시작할 때 "오 하나님, 당신을 믿으며, 당신의 책을 참되다 믿으며,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당신의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를 따릅니다(알라흐마 이마난 비카 와타스디칸 비키타비카 와와파안 비아흐디카 왓티바안 리쑤나티 나비이카 무함마딘)"라고 말한다면 훌륭합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7바퀴를 돌며, 첫 번째 따와프의 처음 세 바퀴에서는 종종걸음(라마르)으로 빠르게

걸습니다. 이는 마카에 처음 도착하여 수행하는 따와프를 말하며, 우므라를 수행하는 자이든, 타맛투으를 하는 자이든, 단독 핫즈로 이흐람을 한 자이든,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자(까린)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나머지 네 바퀴에서는 평소대로 걸습니다. 각 바퀴는 알하자르 알아쓰와드에서 시작하여 그곳에서 끝납니다.

라말(종종걸음)란 보폭을 좁혀 빠르게 걷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이 따와프의 전체 바퀴를 돌 때만 이드띠바으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드띠바으란 상의의 중간 부분을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놓고 두 끝자락을 왼쪽 어깨 위에 걸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바퀴 수에 의심이 든다면, 확실한 것, 즉 더 적은 숫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바퀴를 돌았는지 네 바퀴를 돌았는지 헛갈린다면 세 바퀴로 간주합니다. 싸으이를 할 때도 이와 같이 합니다.

이 따와프를 마친 후에는 따와프의 두 라크아 예배(살라)를 드리기 전에 상의를 양쪽 어깨에 걸치고 두 끝자락이 가슴 위로 오도록 다시 입습니다.

여성들에게 반드시 꾸짖고 경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화장을 하거나 향수를 뿌린 채 따와프를 하는 것, 그리고 가려야 할 신체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따와프를 할 때나 남성들과 섞이게 되는 다른 상황에서 반드시 신체를 가리고 치장을 삼가야 합니다. 여성들은 가려야 할 신체 부위이자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얼굴은 그녀의 가장 뚜렷한 아름다움이므로 마흐람(결혼 불가 친척)이 아닌 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لَا يُبْدِينَ زِينَتَهُنَّ إِلَّا لِبُعُولَتِهِنَّ...}

...남편들 앞이 아니면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말게 하라... [안-누르: 31], 그러므로

남성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알하자르 알아쓰와드에 입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돌을 만지고 입 맞출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남성들과 몸싸움을 벌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 뒤에서 따와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성들과 부대끼며 카바 가까이에서 따와프를 하는 것보다 여성들에게 더 좋고 보상이 큼니다. 라마르(종종걸음)와 이드띠바르는 이 첫 번째 따와프 이외에는 규정되지 않으며, 싸으이 때나 여성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마카에 오셨을 때 수행하신 첫 번째 따와프에서만 라마르와 이드띠바르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와프를 할 때는 크고 작은 하다스(불결 상태)와 물리적인 오물로부터 청결을 유지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따와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과 기원을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되며,

그 안에서 꾸란의 일부를 낭송한다면 훌륭합니다. 이 따와프나 다른 어떤 따와프, 그리고 싸으이에 있어서 특정한 찬양이나 기원이 의무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따와프나 싸으이의 각 바퀴마다 특정한 찬양이나 기원을 지정하여 만들어 낸 관행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찬양과 기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알루큰 알야마니(예멘 구석)와 나란히 서게 되면 오른손으로 그것을 만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비쓰밀라 왈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되 입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만약 만지기가 어렵다면 그냥 지나쳐서 따와프를 계속 진행하며, 그것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거나 나란히 섰을 때 타크비르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그런 행위가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루큰 알야마니와 알하자르

알아쓰와드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رَبَّنَا آتِنَا فِي الدُّنْيَا حَسَنَةً وَفِي الْآخِرَةِ حَسَنَةً وَقِنَا عَذَابَ النَّارِ 201}

...저희의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현세의 훌륭한 것을 주시고 내세의 훌륭한 것도 주시어 저희를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알바까라: 201]. 알하자르 알아쓰와드와 나란히 서게 될 때마다 그것을 만지고 입 맞추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합니다. 만약 만지거나 입 맞추기 어렵다면 나란히 서게 될 때마다 그것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고 타크비르를 외칩니다.

특히 혼잡할 때는 잠잠우물이나 마깸(마깸 이브라힘) 뒤에서 따와프를 해도 무방합니다. 성원 전체가 따와프를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성원의 회랑에서 따와프를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카바 가까이에서 따와프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와프를 마치면 가능하다면 마감 뒤에서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혼잡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다면 성원 내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 알파티하(개경장) 낭송 후에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다음 구절(장)을 낭송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قُلْ يَا أَيُّهَا الْكَافِرُونَ﴾

그대(무함마드)는 말하라. “불신자들이여! [알-카피룬: 1]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위 구절(장)을 낭송하고)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다음을 낭송합니다:

﴿قُلْ هُوَ اللَّهُ أَحَدٌ﴾

그대(무함마드)는 말하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단 한 분이시라. [알-이클라쓰: 1]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위 구절(장)을 낭송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다른 구절을 낭송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하다면 알하자르 알아쓰와드로 향하여 오른손으로 그것을

만집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문을 통해 앗쇄파로 나가서 그곳에 오르거나 근처에 섭니다. 가능하다면 앗쇄파에 오르는 것이 더 좋으며, 첫 번째 바퀴를 시작할 때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낭송합니다:

﴿إِنَّ الصَّفَا وَالْمَرْوَةَ مِنْ شَعَائِرِ اللَّهِ...﴾

실로 앗쇄파와 알마르와는 하나님의 징표들 중 하나이니라... [알-바까라: 158].

앗쇄파에서 끼블라 방향을 마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타크비르를 외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그분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습니다. 주권은 그분의 것이며 찬미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부여하시며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종복을

도우셨으며 홀로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다(라 일라하 일랄라후 왈라후 아크바르 라 일라하 일랄라후 와흐다후 라 샤리카 라후 라홀 물쿠 와라홀 함두 유흐이 와유미투 와후와 알라 쿨리 샤이인 까디르 라 일라하 일랄라후 와흐다후 안자자 와오다후 와나샤라 압다후 와하자말 아흐자바 와흐다후)." 그런 다음 손을 들고 할 수 있는 기원을 올립니다. 이 찬양과 기원을 세 번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내려와서 알마르와를 향해 걸다가 첫 번째 표식(초록 불빛)에 도달하면 남성은 두 번째 표식에 도달할 때까지 빠르게 걷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가려야 할 신체 부위이므로 두 표식 사이에서 빠르게 걷는 것이 규정되지 않았으며, 싸으이 전 과정에서 평소대로 걷는 것만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걸어가 알마르와에 오르거나 근처에 섭니다. 가능하다면 오르는 것이 더 좋으며, 앓샤파에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과 동일하게 알마르와에서도

말하고 행동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구절은 낭송하지 않습니다:

﴿إِنَّ الصَّفَا وَالْمَرْوَةَ مِنْ شَعَائِرِ اللَّهِ...﴾

실로 앗쇄파와 알마르와는 하나님의 징표들 중
하나이니라... [알-바까라: 158], 이 구절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아 첫 번째 바퀴에서 앗쇄파에
오를 때만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내려와서 걸어야 할 곳에서는 걷고 빠르게 걸어야
할 곳에서는 빠르게 걸으며 다시 앗쇄파에
도착합니다. 이 과정을 7번 반복하는데, 가는 것이
한 바퀴이고 돌아오는 것이 한 바퀴가 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خُذُوا عَنِّي مَنَاسِكَكُمْ».

«나로부터 여러분의 순례 의식(마나씨크)을
배우십시오.»¹ 싸으이를 하는 동안 할 수 있는

¹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찬양(디크르)과 기원을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되며, 크고 작은 하다스(불결 상태)로부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으이를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따와프를 마친 후 월경이나 산후 출혈이 시작되었더라도 싸으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것은 유효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결은 싸으이의 유효 조건이 아니라 권장 사항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싸으이를 완료하면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릅니다. 남성은 머리카락을 모두 깎는 것(할끄)이 더 좋습니다. 다만 핫즈를 위해 깎는 것을 미루고 자르기(따끄씨르)만 했다면 그것도 훌륭합니다. 마카에 도착한 시점이 핫즈 기간과 가깝다면, 핫즈 때 나머지 머리카락을 깎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기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교우들이 둘hit자 달 4일에 마카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께서는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오지 않은 이들에게 이흐람을 해제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명령하셨을 뿐 머리카락을 모두 깎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반드시 머리 전체에서 골고루 잘라야 하며, 일부만 자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의 일부만 깎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게는 오직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만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땀은 머리카락에서 안물라(손가락 한 마디) 길이 이하만큼 자르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물라란 손가락의 끝부분을 말하며, 여성은 그 이상 자르지 않습니다.

이흐람을 한 자가 앞서 언급한 것들을 수행하면 그의 우므라가 완료되며,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에게 허용됩니다. 단, 힐(하람 밖의 구역)에서부터 희생 제물(하디)을 이끌고 온 자는 예외로, 그는 핫즈와 우므라 모두에서 해제될 때까지 이흐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독 핫즈나 핫즈와 우므라 결합으로 이흐람을 한 자는,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오지 않은 이상 자신의 이흐람을 우므라로 변경하여 타맛투으를 하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교우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وْلَا أَنِّي سَفَّتُ الْهَدْيَ لَأَحْلَلْتُ مَعَكُمْ».

«만약 내가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함께 이흐람을 해제했을 것입니다.»¹

여성이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을 한 후 월경이나 산후 출혈이 시작되었다면, 그녀가 청결해질 때까지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해서는 안 되며 앓쇄파와 알마르와 사이의 싸으이를 해셔도 안 됩니다. 청결해지면 따와프와 싸으이를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우므라를 완료합니다. 만약 앓타르위야의 날(물 길는 날, 8일) 전까지 청결해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현재 머무는

¹ 알-부카리 전승, 번호 (1568).

장소에서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미나로 향합니다. 이로써 그녀는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자(까린)가 되며, 핫즈 순례자와 동일하게 아라파에 머물고, 마시아르 알하람에 머물며, 돌 던지기를 하고, 무즈달리파와 미나에서 밤을 보내며, 희생 제물을 바치고,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이후 청결해지면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한 번 하고 앓와파와 알마르와 사이의 싸으이를 한 번 하며, 이것으로 그녀의 핫즈와 우므라 모두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아이샤가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을 한 후 월경을 시작했을 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녀에게 하신 다음 말씀에 근거합니다:

«أَفْعَلِي مَا يَفْعَلُ الْحَاجُّ غَيْرَ أَنْ لَا تَطُوفِي بِالْبَيْتِ حَتَّى تَطْهَرِي»

«청결해질 때까지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제외하고, 핫즈 순례자가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¹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월경 중인 여성이나 산후 출혈 중인 여성이 희생제를 바치는 날에 돌 던지기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향수 등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녀에게 허용됩니다. 단, 다른 청결한 여성들처럼 핫즈를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남편과의 관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청결해진 후 따와프와 싸으이를 마치면 비로소 남편과의 관계가 허용됩니다.

항목

둘hit자 달 8일에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하는 것과 미나로 향하는 것에 대한 규정

앗타르위야의 날, 즉 둘hit자 달 8일이 되면 마카에서 이흐람을 해제한 상태인 자들과 마카 주민 중 핫즈를 원하는 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¹ 알-부카리(305번), 무슬림(1211번) 전승.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교우들이 알압따흐에 머물다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명령에 따라 앗타르위야의 날에
 그곳에서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그곳이나 알미잡에서 이흐람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으며, 미나로 향할 때 고별 따와프를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규정된
 것이었다면 그분께서 교우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모든 선함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의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할 때처럼,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할 때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며
 향수를 바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한 후 앗타르위야의 날 정오 이전이나

이후에 미나로 향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자므라툼 아까바에 돌을 던질 때까지 탈비야를 많이 외치며, 미나에서 주흐르, 아스르, 마그립, 이샤, 파즈르 예배를 드립니다. 각 예배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단축하여 예배(살라)를 드리는 것이 순나이나, 마그립과 파즈르 예배는 단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마카 주민과 그 외 사람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미나, 아라파, 무즈달리파에서 마카 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단축하여 드리셨으며, 마카 주민들에게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마카 주민들에게 의무였다면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라파의 날에 해가 뜨면 핫즈 순례자는 미나에서 아라파로 향합니다. 가능하다면 정오 전까지 나미라에 머무는 것이

순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정오를 지나면 이맘(예배 인도자)이나 그의 대리인이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설교를 통해 그날과 그 이후 핫즈 순례자에게 규정된 것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단일성을 믿으며 모든 행위에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순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경계하게 하며, 하나님의 책과 그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를 굳게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 후 주흐르와 아스르 예배를 첫 번째 예배(주흐르) 시간에 맞추어 합치고 단축하여 드리며, 한 번의 아단과 두 번의 이까마로 예배를 드립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해 무슬림이 전승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아라파에 머무는데, 우라나
계곡을 제외한 전체가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끼블라 방향과 자발
아르라흐마(자비의 산)를 마주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둘 다 마주 보기 어렵다면 산을
마주 보지 못하더라도 끼블라 방향을 마주 보니다.
이 장소에서 핫즈 순례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과 기원, 간구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권장되며 기원할 때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만약 탈비야를 외치거나 꾸란의 일부를
낭송한다면 훌륭합니다. 다음과 같이 많이 말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그분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습니다.
주권은 그분의 것이며 찬미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부여하시며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خَيْرُ الدُّعَاءِ دُعَاءُ يَوْمِ عَرَفَةَ، وَأَفْضَلُ مَا قُلْتُ أَنَا وَالنَّبِيُّونَ مِنْ قَبْلِي: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لَهُ الْمُلْكُ وَلَهُ الْحَمْدُ، يُحْيِي وَيُمِيتُ وَهُوَ عَلَى كُلِّ شَيْءٍ قَدِيرٌ»

«가장 훌륭한 기원은 아라파의 날에 하는 기원입니다. 나와 나 이전의 선지자들이 했던 가장 훌륭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그분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습니다. 주권은 그분의 것이며 찬미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부여하시며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¹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أَحَبُّ الْكَلَامِ إِلَى اللَّهِ أَرْبَعٌ: سُبْحَانَ اللَّهِ، وَالْحَمْدُ لِلَّهِ، وَ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اللَّهُ أَكْبَرُ».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네 가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쭈브하날라)', '하나님께 찬미를(알함두릴라)',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¹ 앳-티르미디 전승, 번호 (3585).

존재는 없도다(라 일라하 일랄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알라후 아크바르)'입니다.»¹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경건한 태도로 이 찬양을 많이 외치고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특히 이 위대한 날 이 장소에서는 율법에 명시된 찬양과 기원을 많이 하는 것이 마땅하며, 찬양과 기원의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도문을 선택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미하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쑤브하날라히 와비함디히 쑤브하날라힐 아딤).

{...لَا إِلَهَ إِلَّا أَنْتَ سُبْحَانَكَ إِنِّي كُنْتُ مِنَ الظَّالِمِينَ 87}

...당신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나이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실로 저는 억압하는 자들 중에 있었나이다... [알-안비야: 87].

*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나이다. 은혜와 은총과 아름다운 칭송은 그분의 것이나이다. 오직

¹ 무슬림 전승, 번호 (2137).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불신자들이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만을 위해 종교를 순수하게 지키나이다.

*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나이다¹.

(...رَبَّنَا آتِنَا فِي الدُّنْيَا حَسَنَةً وَفِي الْآخِرَةِ حَسَنَةً وَقِنَا عَذَابَ النَّارِ 201)*

* ...저희의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현세의 훌륭한 삶을 주시고 내세의 훌륭한 삶도 주시어 저희를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알-바카라: 201].

* اللَّهُمَّ أَصْلِحْ لِي دِينِي الَّذِي هُوَ عِصْمَةٌ أَمْرِي، وَأَصْلِحْ لِي دُنْيَايَ الَّتِي فِيهَا مَعَاشِي، وَأَصْلِحْ لِي آخِرَتِي الَّتِي فِيهَا مَعَادِي، وَاجْعَلْ الْحَيَاةَ زِيَادَةً لِي فِي كُلِّ خَيْرٍ، وَالْمَوْتَ رَاحَةً لِي مِنْ كُلِّ شَرٍّ.

* 오 하나님, 제 모든 일의 보호막인 저의 종교를 바르게 하시고, 제 삶의 터전인 현세를 바르게 하시며, 제가 돌아갈 곳인 내세를 바르게 하소서. 저의 삶이 모든 선함에서 늘어나는 계기가 되게

¹ 이븐 아즈주바이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594).

하시고, 죽음이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식이 되게 하소서¹.

* اَعُوْذُ بِاللّٰهِ مِنْ جَهْدِ الْبَلَاءِ، وَدَرْكِ الشَّقَاءِ، وَسُوءِ الْقَضَاءِ، وَشَمَاتَةِ الْأَعْدَاءِ.

* 저는 혹독한 시련, 불행이 덮치는 것, 나쁜 운명, 원수들의 조롱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나이다².

* اللّٰهُمَّ إِنِّيْ أَعُوْذُ بِكَ مِنَ الْهَمِّ وَالْحَزَنِ، وَأَعُوْذُ بِكَ مِنَ الْعَجْزِ وَالْكَسَلِ، وَأَعُوْذُ بِكَ مِنَ الْجُبْنِ وَالْبُخْلِ، وَمِنَ الْمَآثِمِ وَالْمَغْرَمِ، وَأَعُوْذُ بِكَ مِنْ غَلَبَةِ الدَّيْنِ وَقَهْرِ الرِّجَالِ.

* 오 하나님, 저는 근심과 슬픔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며, 무능함과 게으름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비겁함과 인색함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죄악과 빚짐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빚에 짓눌리는 것과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는 것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³.

* اللّٰهُمَّ إِنِّيْ أَعُوْذُ بِكَ مِنَ الْبَرَصِ وَالْجُنُونِ وَالْجُدَامِ وَمِنْ سَيِّئِ الْأَسْقَامِ.

1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20).

2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알-부카리 전승, 번호 (6347).

3 아부 다우드가 아부 우마마 알아안샤리를 통해 이 표현으로 전승했으나 '(죄악과 빚짐으로부터)'라는 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번호 (1554).

* 오 하나님, 저는 백반증과 광기, 나병, 그리고 모든 악성 질환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¹.

* 하나님이시여, 실로 저는 현세와 내세에서 관용과 평온함을 구합니다.

* 하나님이시여, 저는 저의 종교와 저의 현세와 저의 가족과 저의 재산에 대한 용서와 평온함을 구합니다.

* اللَّهُمَّ اسْتُرْ عَوْرَتِي وَآمِنْ رَوْعَاتِي، اللَّهُمَّ احْفَظْنِي مِنْ بَيْنِ يَدَيْ وَمِنْ خَلْفِي، وَعَنْ يَمِينِي وَعَنْ شِمَالِي، وَمِنْ فَوْقِي، وَأَعُوذُ بِعَظَمَتِكَ أَنْ أُغْتَالَ مِنْ تَحْتِي.

* 하나님이시여!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안심시켜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저의 앞과 뒤, 저의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저의 위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저는 제 발밑에서 불시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위대함에 의지하여 보호를 구하나이다².

1 아나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1554).

2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5074).

* اللَّهُمَّ اغْفِرْ لِي جِدِّي وَهَزْلِي، وَخَطِيئِي وَعَمْدِي، وَكُلَّ ذَلِكَ عِنْدِي، اللَّهُمَّ اغْفِرْ لِي مَا قَتَمْتُ وَمَا أَخَرْتُ، وَمَا أَسْرَرْتُ وَمَا أَعْلَنْتُ، وَمَا أَنْتَ أَعْلَمُ بِهِ مِنِّي، أَنْتَ الْمُقَدِّمُ وَأَنْتَ الْمُؤَخِّرُ، وَأَنْتَ عَلَى كُلِّ شَيْءٍ قَدِيرٌ.

* 하나님이지여, 저의 진지함과 농담, 저의 실수와 고의를 용서하소서. 이 모든 허물이 제게 있나이다. 하나님이지여, 제가 이미 저지른 죄와 앞으로 지을 죄, 제가 숨긴 죄와 드러낸 죄, 그리고 저보다 당신께서 더 잘 아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은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자 물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은 모든 것에 전능하시나이다¹.

* اللَّهُمَّ إِنِّي أَسْأَلُكَ النَّبَاتَ فِي الْأَمْرِ وَالْعَزِيمَةَ عَلَى الرَّشْدِ، وَأَسْأَلُكَ شُكْرَ نِعْمَتِكَ وَحُسْنَ عِبَادَتِكَ، وَأَسْأَلُكَ قَلْبًا سَلِيمًا وَلِسَانًا صَادِقًا، وَأَسْأَلُكَ مِنْ خَيْرِ مَا تَعْلَمُ، وَأَعُوذُ بِكَ مِنْ شَرِّ مَا تَعْلَمُ، وَأَسْتَغْفِرُكَ لِمَا تَعْلَمُ، إِنَّكَ عَلَامُ الْغُيُوبِ.

* 하나님이지여, 저는 모든 일에 흔들림이 없기를, 그리고 올바른 길을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기를 구하나이다. 건강한 마음과 진실한 혀를 구하나이다. 당신께서 아시는

¹ 아부 무싸 알아슈아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하디스의 일부, 번호 (2719).

모든 선함을 구하며, 당신께서 아시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당신께서 아시는 저의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나이다. 실로 당신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나이다¹.

* اللَّهُمَّ رَبَّ النَّبِيِّ مُحَمَّدٍ عَلَيْهِ الصَّلَاةُ وَالسَّلَامُ، اغْفِرْ لِي ذَنْبِي، وَأَذْهَبْ غَيْظَ قَلْبِي وَأَجِرْنِي مِنْ مُضَلَّاتِ الْفِتَنِ مَا أَحْيَيْتَنَا.

* 하나님이지여,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주님이시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 분노를 없애주시며, 저희를 살려두시는 동안 현혹하는 시련들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².

* اللَّهُمَّ رَبَّ السَّمَاوَاتِ وَرَبَّ الْأَرْضِ وَرَبَّ الْعَرْشِ الْعَظِيمِ، رَبَّنَا وَرَبَّ كُلِّ شَيْءٍ، فَالِقَ الْحَبِّ وَالنَّوَى، وَمُنْزِلَ التَّوْرَةِ وَالْإِنْجِيلِ وَالْفُرْقَانِ، أَعُوذُ بِكَ مِنْ شَرِّ كُلِّ شَيْءٍ أَنْتَ آخِذٌ بِنَاصِيَتِهِ، اللَّهُمَّ أَنْتَ الْأَوَّلُ فَلَيْسَ قَبْلَكَ شَيْءٌ، وَأَنْتَ الْآخِرُ فَلَيْسَ بَعْدَكَ شَيْءٌ، وَأَنْتَ الظَّاهِرُ فَلَيْسَ فَوْقَكَ شَيْءٌ، وَأَنْتَ الْبَاطِنُ فَلَيْسَ دُونَكَ شَيْءٌ، اقْضِ عَنَّا الدَّيْنَ وَأَغْنِنَا مِنَ الْفَقْرِ.

* 하나님이지여, 하늘의 주님이시자 땅의 주님이시며 위대한 권좌(아르쉬)의 주님이시여,

¹ 살다드 빈 아우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앓-티르미디 전승, 번호 (3407).

² 움무 살라마(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아흐마드 전승 (제6권/301쪽).

저희의 주님이시자 모든 것의 주님이시여, 씨앗과
 낱알을 싹 트게 하시는 분이시며 타우라(토라)와
 인질(복음서)과 푸르칸(꾸란)을 내려주신
 분이시여, 당신께서 통제하고 계신 모든
 악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이지요, 당신은 처음이시니 당신보다 앞선
 것은 없으며, 당신은 마지막이시니 당신 뒤에 올
 것은 없나이다. 당신은 드러난 분이시니 당신보다
 높은 것은 없으며, 당신은 내재하신 분이시니
 당신보다 더 깊숙한 것은 없나이다. 저희의 빛을
 갉아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하소서¹.

* اللَّهُمَّ أَعْطِ نَفْسِي ثَقْوَاهَا، وَزَكِّهَا أَنْتَ خَيْرُ مَنْ زَكَّاهَا، أَنْتَ وَلِيُّهَا وَمَوْلَاهَا، اللَّهُمَّ
 إِنِّي أَعُوذُ بِكَ مِنَ الْعَجْزِ وَالْكَسَلِ، وَأَعُوذُ بِكَ مِنَ الْجُبْنِ وَالْهَرَمِ وَالْبُخْلِ، وَأَعُوذُ
 بِكَ مِنْ عَذَابِ الْقَبْرِ.

* 하나님이지요, 제 영혼에 경외심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정화하소서. 당신은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며, 당신은 영혼의 주인이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지요, 저는 무능함과

¹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13).

게으름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며, 비겁함과
노쇠함과 인색함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무덤의
징벌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¹.

* اللَّهُمَّ لَكَ أَسْلَمْتُ، وَبِكَ أَمَنْتُ، وَعَلَيْكَ تَوَكَّلْتُ، وَإِلَيْكَ أُنَبْتُ، وَبِكَ خَاصَمْتُ، أَعُوذُ
بِعِزَّتِكَ أَنْ تُضِلَّنِي، لَا إِلَهَ إِلَّا أَنْتَ، أَنْتَ الْحَيُّ الَّذِي لَا يَمُوتُ، وَالْجَنُّ وَالْإِنْسُ
يَمُوتُونَ.

* 하나님이시여, 저는 당신께 복종했고 당신을
믿었으며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당신께
회개하며 돌아가고 당신의 힘으로 맞서 싸웁니다.
저를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당신의
권능에 의지하여 보호를 구합니다. 당신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진(정령)과 인간은
모두 죽지만 당신은 결코 죽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².

* اللَّهُمَّ إِنِّي أَعُوذُ بِكَ مِنْ عِلْمٍ لَا يَنْفَعُ، وَمِنْ قَلْبٍ لَا يَخْشَعُ، وَمِنْ نَفْسٍ لَا تَتَّبِعُ،
وَمِنْ دَعْوَةٍ لَا يُسْتَجَابُ لَهَا.

1 자이드 빈 아르캄(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22).

2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17).

* 하나님이지여, 저는 유익하지 않은 지식, 경외하지 않는 마음, 만족하지 않는 영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¹.

* اللَّهُمَّ جَنِّبْنِي مُنْكَرَاتِ الْأَخْلَاقِ وَالْأَعْمَالِ وَالْأَهْوَاءِ وَالْأَنْوَاءِ.

* 하나님이지여, 추악한 도덕과 행위, 변덕스러운 욕망과 질병들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하소서².

* اللَّهُمَّ أَلْهِمْنِي رُشْدِي، وَأَعِزَّنِي مِنْ شَرِّ نَفْسِي.

* 하나님이지여, 저에게 올바른 길을 일깨워주시고 제 영혼의 악으로부터 저를 구하소서³.

* اللَّهُمَّ اكْفِنِي بِحَلَالِكَ عَنْ حَرَامِكَ، وَأَغْنِنِي بِفَضْلِكَ عَنْ سِوَاكَ.

* 하나님이지여, 저에게 당신께서 허락하신 할랄만으로 충분하게 하시어 하람(금지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부유하게

1 이는 앞서 출처가 언급된 자이드 빈 아르캄(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일부입니다, 번호 (2722).

2 지야드 빈 일라까가 그의 삼촌을 통해 전한 앓-티르미디 전승, 번호 (3591).

3 임란 빈 후샤인(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앓-티르미디 전승, 번호 (3483).

하시어 당신 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게
하소서¹.

* اللَّهُمَّ إِنِّي أَسْأَلُكَ الْهُدَى وَالتَّقَى وَالْعَفَافَ وَالْغَنَى.

* 하나님이지여, 저는 당신께 인도와 경외, 순결과
부유함을 구합니다².

* اللَّهُمَّ إِنِّي أَسْأَلُكَ الْهُدَى وَالسَّادَ.

* 하나님이지여, 저는 당신께 인도와 올바름을
구합니다³.

* اللَّهُمَّ إِنِّي أَسْأَلُكَ مِنَ الْخَيْرِ كُلِّهِ، عَاجِلِهِ وَآجِلِهِ، مَا عَلِمْتُ مِنْهُ وَمَا لَمْ أَعْلَمْ، وَأَعُوذُ
بِكَ مِنَ الشَّرِّ كُلِّهِ، عَاجِلِهِ وَآجِلِهِ، مَا عَلِمْتُ مِنْهُ وَمَا لَمْ أَعْلَمْ، وَأَسْأَلُكَ مِنْ خَيْرِ مَا
سَأَلْتُكَ مِنْهُ عَبْدُكَ وَنَبِيُّكَ مُحَمَّدٌ ﷺ، وَأَعُوذُ بِكَ مِنْ شَرِّ مَا اسْتَعَاذَ مِنْهُ عَبْدُكَ وَنَبِيُّكَ
مُحَمَّدٌ ﷺ، اللَّهُمَّ إِنِّي أَسْأَلُكَ الْجَنَّةَ وَمَا قَرَّبَ إِلَيْهَا مِنْ قَوْلٍ أَوْ عَمَلٍ، وَأَعُوذُ بِكَ مِنَ
النَّارِ وَمَا قَرَّبَ إِلَيْهَا مِنْ قَوْلٍ أَوْ عَمَلٍ، وَأَسْأَلُكَ أَنْ تَجْعَلَ كُلَّ قَضَاءٍ قَضَيْتَهُ لِي
خَيْرًا.

* 하나님이지여, 제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당장 다가올 것이든 훗날 다가올 것이든 모든
선함을 당신께 구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1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앓-티르미디 전승, 번호 (3563).

2 압둘라 빈 마스우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21).

3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25).

것이든, 당장 다가올 것이든 훗날 다가올 것이든 모든 악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 당신의 종복이자 선지자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당신께 구했던 모든 선함을 저 또한 구합니다. 당신의 종복이자 선지자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피하고자 했던 모든 악으로부터 저 또한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지여, 저는 당신께 천국을 구하며, 천국에 가까워지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구합니다. 저는 불지옥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불지옥에 가까워지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 또한 당신께서 제게 내리신 모든 운명이 결국 선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¹.

*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لَهُ الْمُلْكُ وَلَهُ الْحَمْدُ، يُحْيِي وَيُمِيتُ بِيَدِهِ الْخَيْرُ وَهُوَ عَلَى كُلِّ شَيْءٍ قَدِيرٌ، سُبْحَانَ اللَّهِ، وَالْحَمْدُ لِلَّهِ، وَ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اللَّهُ أَكْبَرُ، وَلَا حَوْلَ وَلَا قُوَّةَ إِلَّا بِاللَّهِ الْعَلِيِّ الْعَظِيمِ.

¹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이븐 마자 전승, 번호 (3846).

*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그분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습니다. 주권은 그분의 것이며 찬미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부여하시며 모든 선함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은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지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¹.

* اللَّهُمَّ صَلِّ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كَمَا صَلَّيْتَ عَلَى إِبْرَاهِيمَ، وَعَلَى آلِ إِبْرَاهِيمَ، إِنَّكَ حَمِيدٌ مَجِيدٌ، وَبَارِكْ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كَمَا بَارَكْتَ عَلَى إِبْرَاهِيمَ، وَعَلَى آلِ إِبْرَاهِيمَ، إِنَّكَ حَمِيدٌ مَجِيدٌ.

*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¹ 우바다 빈 앓와미트(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알-부카리 전승, 번호 (1154).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¹.

{...رَبَّنَا آتِنَا فِي الدُّنْيَا حَسَنَةً وَفِي الْآخِرَةِ حَسَنَةً وَقِنَا عَذَابَ النَّارِ 201}

* ...저희의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현세의
훌륭함을 주시고 내세의 훌륭함도 주시어 저희를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알-바까라: 201].

이 위대한 장소에서 핫즈 순례자는 앞서 언급한
찬양과 기원들, 혹은 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찬양과 기원,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향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간절히 기원하며 자신의 주님께
현세와 내세의 선함을 구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기원하실 때 기원을 세 번씩

¹ 카으브 빈 우즈라(하나님께서 그를 흠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알-부카리 전승, 번호 (3370).

반복하셨으므로,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을 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장소에서 무슬림은 영광스러운 주님께 낮추고, 그분께 겸손하며, 그분 앞에 복종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며, 그분의 징벌과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실한 회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그들을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시며, 불지옥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위대한 날이자 거대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바드르 전투의 날을 제외하고는 사탄이 아라파의 날보다 더 패배하고 초라하며 비참해 보이는 날은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에게 베푸시는 너그러움과 은총,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과 용서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쇄히흐 무슬림 에서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مَا مِنْ يَوْمٍ أَكْثَرَ مِنْ أَنْ يُعْتَقَ اللَّهُ فِيهِ عَبْدًا مِنَ النَّارِ مِنْ يَوْمِ عَرَفَةَ، وَإِنَّهُ لَيَدْنُو ثُمَّ يُبَاهِي بِهِمُ الْمَلَائِكَةَ، فَيَقُولُ: مَا أَرَادَ هَؤُلَاءِ؟».

«아라파의 날보다 하나님께서 불지옥으로부터 종복을 구원하시는 일이 더 많은 날은 없습니다. 실로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천사들에게 그들을 자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¹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자신들로부터 선함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며, 모든 죄와 과오에 대해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수많은 찬양과 기원으로 적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를 슬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핫즈 순례자들은 이 장소에서 해가 질 때까지 찬양과 기원, 간구에 매진해야 합니다. 해가 지면 평온하고 엄숙하게 탈비야를 많이 외치며 무즈달리파로 향하되, 넓은 길에서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¹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1348).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가지기 전에 아라파를 떠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해가 질 때까지 머무르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خُذُوا عَنِّي مَنَاسِكَكُمْ».

«나로부터 여러분의 순례 의식(마나씨크)을 배우십시오.»¹

무즈달리파에 도착하면 도착한 즉시 한 번의 아단과 두 번의 이까마로 마그립 세 라크아와 이샤 두 라크아를 합쳐서 예배(살라)를 드립니다. 마그립 시간에 무즈달리파에 도착했던 이샤 시간이 들어온 후에 도착했던 상관없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무즈달리파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돌 던지기에 쓸 조약돌을 줍고,

¹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그중 다수가 그것이 율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믿는 행위는 근거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마식아르(알하람)에서 미나로 떠나신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위해 조약돌을 주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약돌은 어디서 줍든 무방하며, 반드시 무즈달리파에서 주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나에서 줍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날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아 자므라툼 아까바에 던질 일곱 개의 조약돌을 줍는 것이 순나입니다. 나머지 사흘 동안은 매일 미나에서 스물한 개의 조약돌을 주워 세 곳의 돌기둥(자마라트)에 던집니다.

조약돌을 씻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씻지 않은 채로 던집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교우들로부터 그런 행위가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누군가 던진 조약돌을 다시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핫즈 순례자는 이날 밤을 무즈달리파에서 보냅니다. 노약자나 여성, 어린이 등은 밤이 깊었을 때 먼저 미나로 출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아이샤와 움무 싄라마 등의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그 외 핫즈 순례자들의 경우 파즈르 예배를 드릴 때까지 무즈달리파에 머무는 것이 매우 강조됩니다. 그런 다음 마식아르 알하람 근처에 서서 끼블라 방향을 마주 보고 주변이 환히 밝아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타크비르, 기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기원할 때 두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권장되며, 무즈달리파 안이라면 어디에 서 있든 무방합니다. 반드시 마식아르 알하람 가까이 가거나 그곳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قَفْتُ هَاهُنَا - يَغْنِي عَلَيَّ الْمَشْعَرُ الْحَرَامُ - وَجَمَعْتُ كُلَّهَا مَوْقِفٌ»

«내가 여기, 즉 마식아르 알하람에 서 있지만, 자므으(무즈달리파) 전체가 머무는 장소입니다.»¹ 무슬림이 그의 쇠히흐 에서 전승했습니다. '자므으'란 무즈달리파를 뜻합니다.

주변이 환히 밝아지면 해가 뜨기 전에 미나로 향하며, 이동하는 동안 탈비야를 많이 외칩니다. 무핫씨르 계곡에 도달하면 발걸음을 조금 재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나에 도착하면 자므라툴 아까바에서 탈비야를 멈추고, 도착한 즉시 그곳에 일곱 개의 조약돌을 연속해서 던집니다. 조약돌을 던질 때마다 손을 들고 타크비르를 외칩니다. 계곡 아래쪽에서 카으바를 자신의 왼쪽에, 미나를 자신의 오른쪽에 두고 던지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방향에서 던지더라도 조약돌이 던지는

¹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1218).

구역(마르마) 안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유효합니다. 조약돌이 마르마 안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안에 떨어지는 것만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조약돌이 마르마 안에 떨어졌다가 밖으로 튕겨 나가더라도 학자들의 명백한 견해에 따르면 유효합니다. 안나와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가 샤르흐 알무하드다브 에서 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던지는 조약돌의 크기는 손가락으로 튕겨 던지는 조약돌 크기(카드프), 즉 병아리콩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돌을 던진 후에는 자신의 희생 제물을 바치며(나흐르), 제물을 바치거나 도축할(다브흐)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당신으로부터 왔으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비쓰밀라 왈라후 아크바르 알라훔마 하다 민카 와라카)"라고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물의 방향을 끼블라로 향하게 합니다. 낙타는 선 채로 왼쪽 앞다리를 묶어둔 상태에서 나흐르(목을

찌르는 방식)를 하고, 소와 양은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게 누인 상태에서 다브흐(목을 베는 방식)를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만약 끼블라가 아닌 방향으로 도축하더라도 순나를 저버린 것일 뿐 도축 자체는 유효합니다. 도축 시 끼블라를 향하게 하는 것은 순나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의 고기를 직접 먹고 주변에 선물하며 자선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فَكُلُوا مِنْهَا وَأَطْعُمُوا الْبَائِسَ الْفَقِيرَ}

...그 고기를 먹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먹이라. [알-하즈: 28], 학자들의 가장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도축 시간은 아얌 앳타슈리끄(타슈리끄의 날들)의 셋째 날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도축 기간은 희생 제를 바치는 날과 그 이후 사흘간이 됩니다.

희생 제물을 나흐르하거나 다브흐한 후에는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는데, 모두 깎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머리카락을 깎은 자들을 위해서는 (세 번이나) 자비와 용서를 기원하셨으나, 자르기만 한 자들을 위해서는 한번만 기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일부만 자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깎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골고루 잘라야 합니다. 여성은 모든 땀은 머리카락에서 안물라(손가락 한 마디) 길이 이하만큼 자릅니다.

자므라툼 아까바에 돌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고 나면, 이흐람을 한 자에게 여성을 제외하고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이를 '첫 번째 해제(앗타할룰 알아우왈)'라고 부릅니다. 이 해제 이후에 향수를 바르고 마카로 향하여 따와프 알이파다를 도는 것이 순나입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كُنْتُ أَطِيبُ رَسُولَ اللَّهِ ﷺ لِإِحْرَامِهِ قَبْلَ أَنْ يُحْرَمَ، وَلِحَلِّهِ قَبْلَ أَنْ يَطُوفَ بِالْبَيْتِ»

«저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흐람을 하시기 전에 이흐람을 위한 향수를 발라드렸고,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하시기 전 해제 상태이실 때 해제를 위한 향수를 발라드렸습니다.»¹ 알-부카리와 무슬림 전승.

이 따와프를 '따와프 알이파다' 또는 '따와프 앓-지야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핫즈의 기둥(루كن) 중 하나로서 이것이 없으면 핫즈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의 다음 말씀이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ثُمَّ لْيَقْضُوا تَفَثَهُمْ وَلْيُوفُوا نُذُورَهُمْ وَلْيَطَّوَّفُوا بِالْبَيْتِ الْعَتِيقِ (29)﴾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의 지저분함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맹세하여 의무화한 것들을 이행하며, 오래된 성전(카으바)을 돌지니라. "[알-핫즈: 29]."

따와프를 마치고 마깸 뒤에서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린 후, 타맛투으를 하는 자라면 앓와파와

¹ 알-부카리(1539번), 무슬림(1189번) 전승.

알마르와 사이에서 싸우이를 합니다. 이 싸우이는 핫즈를 위한 것이며, 첫 번째 싸우이는 우므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의 가장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한 번의 싸우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나섰습니다"라고 전하며 하디스를 언급한 데 근거합니다. 그 하디스에서 선지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مَنْ كَانَ مَعَهُ هَذِي فَلْيُهْلَ بِالْحَجِّ مَعَ الْعُمْرَةِ ثُمَّ لَا يَحِلُّ حَتَّى يَحِلَّ مِنْهُمَا جَمِيعًا...»

«희생 제물을 동반한 자는 우므라와 함께 핫즈 이흐람을 시작하고, 두 가지 모두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제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فَطَافَ الَّذِينَ أَهَلُّوا بِالْعُمْرَةِ بِالْبَيْتِ وَبِالصَّفَا وَالْمَرْوَةِ ثُمَّ حَلُّوا ثُمَّ طَافُوا طَوَافًا آخَرَ بَعْدَ أَنْ رَجَعُوا مِنْ مَلَى لِحَجَّتِهِمْ»

«우므라 이흐람을 시작했던 자들은 성전을 돌고 앓사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돈 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핫즈를 마치고 미나에서 돌아온 후

다시 한 번 또 다른 따와프(싸으이)를 돌았습니다.»¹

알-부카리와 무슬림 전승.

그녀(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우므라 이흐람을 시작했던 자들에 대해 "그들은 핫즈를 마치고 미나에서 돌아온 후 다시 한 번 또 다른 따와프를 돌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 하디스를 해석하는 가장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앓와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도는 싸으이를 뜻합니다. 이것을 따와프 알이파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와프 알이파다는 모두에게 의무적인 기둥(루كن)이며 이미 모든 자가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타맛투으를 하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 즉 핫즈를 완성하기 위해 미나에서 돌아온 후 앓와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두 번째로 도는 싸으이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만큼 명백한 사실이며,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¹ 알-부카리(1556번), 무슬림(1211번) 전승.

이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근거는, 알-부카리가 쇠히흐 에서 무알라끄(연결되지 않은 전승)이지만 확정적인 형태로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핫즈의 타맛투으에 대해 질문받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는 전승입니다: «고별 핫즈 당시 무하지룬과 안쇄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아내들이 이흐람을 시작했고 우리도 이흐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카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목걸이를 두른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핫즈 이흐람을 우므라로 바꾸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전을 돌고 앓쇄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돈 후, 아내들과 관계를 맺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께서 '목걸이를 두른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는 제물이 도축 장소에 이를 때까지 이흐람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앓타르위야의 날 저녁에 우리에게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고, 순례 의식을 마친 후 돌아와서 우리는 성전을 돌고 앓샤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돌았습니다.»¹ 여기까지가 목적했던 바입니다. 이는 타맛투으를 하는 자가 두 번의 싸으이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무슬림이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승한 다음 내용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의 교우들은 앓샤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한 번의 따와프(싸으이)로만 돌았습니다.»² 이 첫 번째 따와프(싸으이)는 희생 제물을 이끌고 왔던 교우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핫즈와 우므라 모두에서 해제될 때까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¹ 알-부카리 전승, 번호 (1572).

² 무슬림 전승, 번호 (1215).

베푸시길)와 함께 이흐람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이흐람을 시작하셨고,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이들에게 우므라와 함께 핫즈 이흐람을 시작하며,
 두 가지 모두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흐람을 해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급된 자비르의 하디스와 그 외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하디스들이 증명하듯,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자(까린)는 한 번의 싸으이만
 수행하면 됩니다.

단독 핫즈를 수행하며 희생 제를 바치는 날까지
 이흐람 상태를 유지한 자 역시 한 번의 싸으이만
 수행하면 됩니다.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자와
 단독 핫즈를 수행하는 자가 따와프 알꾸둠(도착의
 따와프) 이후에 싸으이를 했다면, 그것으로 따와프
 알이파다 이후의 싸으이를 대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이샤와 이븐 압바쓰의 두
 하디스와 앞서 언급된 자비르의 하디스를 모두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모순이 사라지고 모든 하디스를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이샤와
이븐 압바쓰의 두 하디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전승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하디스는 타맛투으를
하는 자의 두 번째 싸으이를 입증하고 있는 반면,
자비르 하디스의 표면적인 의미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율법학 원리와 하디스학
용어론에 확립된 바와 같이, 입증하는 쪽이
부정하는 쪽보다 우선합니다. 올바르게
이끄시는 분은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항목

희생 제를 바치는 날 핫즈 순례자가 행해야 할 최선의 것들에 대한 설명

핫즈 순례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희생 제를
바치는 날에 앞서 언급된 대로 이 네 가지 일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자므라툼 아까바에 돌을 던지고, 그다음 희생 제물을 바치며(나흐르), 그다음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고, 그다음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한 뒤 타맛투으를 하는 자는 그 이후에 싸으이를 합니다. 따와프 알꾸둠과 함께 싸으이를 하지 않은 단독 핫즈 순례자(무프리드)와 결합 핫즈 순례자(까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일들 중 일부를 다른 것보다 먼저 행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이에 대한 허용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와프보다 싸으이를 먼저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희생 제를 바치는 날 행하는 일들에 속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교우가 전한 다음 말에 포함됩니다: "그날 무엇을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께서는 오직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فْعَلْ وَلَا حَرَجَ»

«행하십시오. 죄가 없습니다.»¹ 이것은 깜빡하거나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 일반적인 허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편의와 수월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따와프를 하기 전에 싸으이를 한 자에 대해 질문받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لَا حَرَجَ»

«죄가 없습니다.»² 아부 다우드가 우싸마 빈 샤리크의 하디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쇄히흐) 전승 경로로 전했습니다. 이로써 그것이 일반적인 허용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졌습니다.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핫즈 순례자가 완전한 해제(앗타할룰 앓탐)를 얻게 되는 세 가지 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¹ 알-부카리(83번), 무슬림(1306번) 전승.

²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2015).

자므라툼 아까바에 돌 던지기, 머리카락 깎거나 자르기, 그리고 따와프 알이파다 후의 싸으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행하면 여성을 포함하여 향수 등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에게 허용됩니다. 이 중 두 가지를 행하면 여성을 제외하고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에게 허용되며, 이를 '첫 번째 해제(앗타할룰 알아우왈)'라고 부릅니다.

핫즈 순례자는 잠잠 물을 배불리 마시고, 유익한 기도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مَاءٌ رَزَمَ لِمَا شَرِبَ لَهُ».

«잠잠 물은 그것을 마시는 목적에 따라 효험이 있습니다.»¹ 이는 와히흐 무슬림 에서 아부 다르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잠잠 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와 같습니다:

¹ 자비르 빈 압둘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이븐 마자 전승, 번호 (3062).

«إِنَّهُ طَعَامٌ طَعِمَ».

«실로 그것은 영양분을 주는 음식입니다.»¹ 아부 다우드가 덧붙이기를:

«وَشِفَاءٌ سُقِمَ».

«질병의 치유제입니다.»²

따와프 알이파다와 싸으이 의무가 있는 자의 싸으이를 마친 후, 핫즈 순례자들은 미나로 돌아가 그곳에서 3일 낮과 밤을 머뭅니다. 이 3일 동안 매일 해가 정오를 지난 후에 세 곳의 돌기둥(자마라트)에 돌을 던지며, 던질 때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자므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쓰지드 알카이프 곁에 있는 것이며, 그곳에 일곱 개의 조약돌을 연속해서 던집니다. 조약돌을 던질 때마다 손을 들고, 그곳에서 뒤로 물러나 그것을 자신의 왼쪽에 두고 끼블라를 마주 보는 것이

¹ 무슬림 전승, 번호 (2473).

² 아부 다우드 알따알리씨를 의미하며, 그는 아부 다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담은 같은 하디스에서 이를 전승했습니다. 아부 다우드 알따알리씨의 무스나드 459번 참조.

순나입니다. 두 손을 들고 기원과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므라에 첫 번째와 같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진 후 조금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자신의 오른쪽에 두고 끼블라를 마주 보는 것이 순나입니다. 두 손을 들고 많이 기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므라에 돌을 던지며, 그 곁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타슈리끄의 날들 중 둘째 날에도 정오가 지난 후 첫째 날처럼 자마라트에 돌을 던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므라 곁에서는 첫째 날에 했던 것과 똑같이 행합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타슈리끄의 날들 중 첫 이틀 동안 돌을 던지는 것은 핫즈의 의무(와집)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첫째 밤과 둘째 밤에 미나에서 머무는 것도 의무입니다. 단, 물을 공급하는 자나 목동 등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언급된 이틀 동안 돌을 던진 후 미나에서 서둘러 떠나고 싶은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며, 해가 지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남아서 셋째 밤을 보내고 셋째 날에 자마라트에 돌을 던진 자의 행위가 더 훌륭하고 보상이 큼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اذْكُرُوا اللَّهَ فِي أَيَّامٍ مَّعْدُودَاتٍ فَمَنْ تَعَجَّلَ فِي يَوْمَيْنِ فَلَا إِنَّكُمْ عَلَيْهِ وَمَنْ تَأَخَّرَ فَلَا إِنَّكُمْ عَلَيْهِ لِمَنِ اتَّقَى...﴾

정해진 날들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틀 만에 서둘러 떠나는 자에게도 죄가 없고, 남아서 지체하는 자에게도 죄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함이라... [알-바카라: 203]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사람들에게는 서둘러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본인은 서둘러 떠나지 않으시고 13일 정오 이후에 자마라트에 돌을 던질 때까지 미나에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돌을 던지신 후 주흐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직접 돌을 던질 능력이 없는 소년의 보호자는 자신을 위해 먼저 던진 후 아이를 대신하여 자므라투 아까바와 다른 자마라트에 돌을 던지는 것이 허용됩니다. 던질 능력이 없는 어린 소녀 역시 보호자가 그녀를 대신하여 던집니다.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حَجَّجْنَا مَعَ رَسُولِ اللَّهِ ﷺ، وَمَعَنَا النِّسَاءُ وَالصِّبْيَانُ، فَلَبَّيْنَا عَنِ الصِّبْيَانِ وَرَمَيْنَا عَنْهُمْ»

«우리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여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핫즈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대신하여 탈비야를 외쳤고, 그들을 대신하여 돌을 던졌습니다.»¹ 이븐 마자 전승.

질병, 고령, 임신 등으로 인해 직접 돌을 던질 능력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던지도록 위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¹ 앳-티르미디 전승, 번호 (927).

﴿فَاتَّقُوا اللَّهَ مَا اسْتَطَعْتُمْ...﴾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앗-타가분: 16], 이들은 자마라트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기 어렵고, 돌을 던지는 시간은 지나가 버리며 나중에 보충(까다)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순례 의식들과 달리 위임이 허용된 것입니다. 반면 이흐람을 한 자는 비록 자신의 핫즈가 자발적 행위(나필라)라 할지라도 다른 의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핫즈나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을 한 자는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اتِمُّوا الْحَجَّ وَالْعُمْرَةَ لِلَّهِ...﴾

하나님을 위해 핫즈와 우므라를 완수하라... [알-바까라: 196], 따와프와 싸으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돌 던지기 시간과 달리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아라파에 머무는 것과 무즈달리파, 미나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지만, 능력이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직접 돌을 던지는 것과 달리 어려움이 따를지언정 이 장소들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돌 던지기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한해 경건한 쌀라프 살리흐(선조)들로부터 대리 수행이 전해져 왔으나 다른 의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배 행위(이바다트)는 계시로 정해진 것이므로 누구도 확고한 근거 없이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자는 한자리에 선 채로 세 곳의 자마라트 각각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 던진 후 위임자를 위해 이어서 돌을 던지는 것이 허용됩니다. 학자들의 가장 올바른 두 가지 견해 중 하나에 따르면, 세 곳의 자마라트에 자신을 위한 돌 던지기를 모두 완료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위임자를 위해 던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어려움과 곤란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مَا جَعَلَ عَلَيْكُمْ فِي الدِّينِ مِنْ حَرَجٍ...}

...종교 안에서 너희에게 어떠한 곤란함도 두지
않으셨노라... [알-하즈: 78].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يَسِّرُوا وَلَا تُعَسِّرُوا».

«쉽게 해 주고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¹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교우들이 어린아이들이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대신해 돌을 던졌을 때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널리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전승되기 쉬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¹ 아나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알-부카리
전승, 번호 (69).

항목

타맛투으를 하는 자와 까린(결합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희생 제물(담)의 의무에 대하여

타맛투으를 하거나 결합 핫즈를 수행하는 순례자가 알마쓰지드 알하람의 주민이 아닌 경우 희생 제물(담)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 한 마리, 또는 낙타 7분의 1마리, 또는 소 7분의 1마리입니다. 이 제물은 반드시 허용된(할랄) 재산과 올바른 수입으로 마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므로 선한 것만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에 여유를 주셨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게 하셨다면, 왕이든 누구든 사람들에게 제물이나 그 밖의 것을 구걸하는 행위를 삼가고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구걸을 비난하고 흠잡으시며

그것을 피하는 자를 칭찬하신 많은 하디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맛투으를 하는 자와 까린이 희생 제물을 바칠 능력이 없다면, 핫즈 기간 동안 3일을 금식하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7일을 금식해야 합니다. 이 3일의 단식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원한다면 희생 제를 바치는 날 이전에 단식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타슈리끄의 3일 동안 단식할 수도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فَمَنْ تَمَتَّعَ بِالْعُمْرَةِ إِلَى الْحَجِّ فَمَا اسْتَيْسَرَ مِنَ الْهَدْيِ فَمَنْ لَمْ يَجِدْ فَصِيَامَ ثَلَاثَةِ أَيَّامٍ فِي الْحَجِّ وَسَبْعَةٍ إِذَا رَجَعْتُمْ تِلْكَ عَشْرَةٌ كَامِلَةٌ ذَلِكَ لِمَنْ لَمْ يَكُنْ أَهْلُهُ حَاضِرِي الْمَسْجِدِ الْحَرَامِ...﴾

...우므라를 마친 후 핫즈까지 타맛투으를 하는 자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희생 제물을 바치라. 하지만 제물을 구하지 못한 자는 핫즈 기간 중에 3일 동안 금식하고, 너희가 돌아간 후에 7일 동안 금식하라. 그것으로 온전한 10일이 되느니라. 이는 가족이 알마쓰지드 알하람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알-바까라: 196] 꾸란 구절.

쇄히흐 알-부카리 에서 아이샤와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لَمْ يُرَخَّصْ فِي أَيَّامِ التَّشْرِيقِ أَنْ يُصَمَّنَ إِلَّا لِمَنْ لَمْ يَجِدِ الْهَدْيَ»

«타슈리크의 날들에는 희생 제물을 구하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는 금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¹

이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로 귀속되는(마르푸으) 전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아라파의 날에는 단식을 하지
않도록 3일의 단식을 아라파의 날 이전에 먼저
수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단식하지
않은 상태로 아라파의 날에 머무르셨고,
아라파에서 아라파의 날에 단식하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날 단식을 하지
않는 것이 찬양과 기원을 하는 데 더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언급된 3일의 단식은 연속해서 하든
띄어서 하든 허용됩니다. 7일의 단식 역시

¹ 알-부카리 전승, 번호 (1998).

연속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모아서 하든 띄어서 하든 허용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연속성을 조건으로 달지 않으셨고, 사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역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7일의 단식은 가족에게 돌아갈 때까지 미루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سَبْعَةَ إِذَا رَجَعْتُمْ...﴾

...돌아간 후에 7일 동안... [알-바까라: 196].

제물을 바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단식을 하는 것이 왕이나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구걸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품지도 않았는데 희생 제물이나 그 밖의 것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핫즈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즉, 위임자가 지급한 돈으로 희생 제물을 사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거짓으로 특정인들의 이름을 대며 정부나 다른 곳에 희생

제물의 일부를 요구하는 관행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금지됩니다.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무슬림들을 이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항목

하즈 순례자 등에게 부과된 선을 권장할

의무에 대하여

하즈 순례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가장 위대한 의무 중 하나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금지하는 것(알아므르 빌마으루프 완나흐이 아닐 문카르), 그리고 합동으로 다섯 번의 예배(살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과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입을 빌려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카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비워둔 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관행은 율법에 어긋나는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고 사람들이 성원에서 예배를 지키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븐 움무 마크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하신 말씀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각 장애인이고 집이 성원에서 멀다는 이유로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자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لْ تَسْمَعُ النَّدَاءَ بِالصَّلَاةِ؟ قَالَ: نَعَمْ، قَالَ: فَأَجِبْ»،

«예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가 "예"라고 답하자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응답하십시오.»¹ 또 다른 전승에서는:

«لَا أَجِدُ لَكَ رُخْصَةً»،

«당신에게 허용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²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قَدْ هَمَمْتُ أَنْ أَمَرَ بِالصَّلَاةِ فَنُقَامَ، ثُمَّ أَمَرَ رَجُلًا فَيُؤَمِّمَ النَّاسَ، ثُمَّ أَنْطَلِقَ إِلَى رَجُلٍ لَا يَشْهَدُونَ الصَّلَاةَ فَأَحْرِقَ عَلَيْهِمْ بَيُوتَهُمْ بِالنَّارِ»،

¹ 알-부카리(2420번), 무슬림(651번) 전승.

²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653).

«나는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여 이까마를 외치게 한 뒤 한 사람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집을 불태워버릴까 생각했습니다.»¹ 수난 이븐 마자와 그 외 서적에서 훌륭한(하싼) 전승 경로를 통해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مَنْ سَمِعَ النَّدَاءَ فَلَمْ يَأْتِ فَلَا صَلَاةَ لَهُ إِلَّا مِنْ عُذْرٍ»،

«부름을 듣고도 오지 않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² 쇄히흐 무슬림 에서 이븐 마쓰우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했습니다: «내일 무슬림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자는 부름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이 예배들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지자를

¹ 압둘라 빈 움무 마크툼을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552).

² 무슬림 전승, 번호 (654).

위해 인도의 순나들을 제정하셨으며, 이 예배들은 그 인도의 순나에 속합니다. 만약 뒤쳐지는 자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선지자의 순나를 버리는 것이며, 선지자의 순나를 버린다면 여러분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깨끗이 청결을 유지한 후 성원들 중 하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선행을 기록해 주시고 그로 인해 그의 지위를 한 단계 높여주시며 그의 죄를 하나 지워주십니다. 우리는 확실한 위선자 외에는 아무도 이로부터 뒤쳐지는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까지 와서 대열에 서곤 했습니다.»¹

핫즈 순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멀리하고 이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음, 동성애, 절도, 이자(리바) 취득, 고아의 재산 갈취, 거래 시의

¹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흠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551).

사기, 맡겨진 것에 대한 배신, 술 마시기, 흡연, 옷 길게 늘어뜨리기, 교만, 시기, 과시, 뒷담화, 이간질, 무슬림 조롱, 그리고 축음기, 우드, 라바브, 피리 등 유흥 악기 사용, 노래 듣기, 라디오 등의 오락 기기 사용, 주사위 놀이, 체스, 도박(마이씨르), 인간 등 생명체의 형상 그리기 및 이에 동조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종복들에게 금지하신 악행들이므로, 핫즈 순례자들과 알마쓰지드 알하람의 거주민들은 다른 이들보다 이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안전한 도시에서 짓는 죄는 그 죄악이 더 무겁고 징벌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مَنْ يُرِدْ فِيهِ بِالْحَادِ بِظُلْمٍ نُذِقْهُ مِنْ عَذَابِ إِلِيمٍ 25﴾

...그곳에서 부당하게 었나가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을 맛보게 하리라. [알-하즈: 25], 하람(성역) 구역에서 부당하게 었나가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거늘, 하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자의 징벌은 어떻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더욱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동과 다른 모든 죄악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즈 순례자가 하즈의 선함과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죄악들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하디스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مَنْ حَجَّ فَلَمْ يَرْفُتْ وَلَمْ يَفْسُقْ رَجَعَ كَيَوْمٍ وَلَدَتْهُ أُمُّهُ».

«누구든 하즈를 수행하며 라파스(성관계와 추잡한 언행)를 맏지 않고 푸쑤끄(죄악)를 저지르지 않는 자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던 날처럼 무고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¹

¹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알-부카리(1521번) 및 무슬림(1350번) 전승.

이러한 악행들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것은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그들에게 서원하고, 그들을 위해 도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기원자를 위해 중재해 주기를 바라거나, 환자를 치유해 주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등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장 큰 ‘하나님께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에 해당하며, 자힐리야(무지) 시대의 불신자들이 믿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부정하고 금지하기 위해 사도들을 보내시고 책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핫즈 순례자를 비롯한 모든 개인은 이를 경계해야 하며, 만약 과거에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지나간 일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한 후 새로운 핫즈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큰 쉬르크는 모든 선행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لَوْ أَشْرَكُوا لَحَبِطَ عَنْهُمْ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88}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었더라면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으리라. [알-안암: 88].

작은 '쉬르크'의 종류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카으바, 아마나(신뢰) 등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과시와 허영,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 덕분입니다"와 같은 말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쉬르크적인 악행들을 경계하고 그것을 버리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مَنْ حَلَفَ بِغَيْرِ اللَّهِ فَقَدْ كَفَرَ أَوْ أَشْرَ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이미
불신했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둔
것입니다.»¹ 아흐마드, 아부 다우드, 앳-티르미디가
신뢰할 수 있는(쇄히흐) 전승 경로로 전했습니다.

쇄히흐 에서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 كَانَ حَالِفًا فَلْيَحْلِفْ بِاللَّهِ أَوْ لِيَصْنُتْ».

«맹세하려는 자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나
침묵하십시오.»²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مَنْ حَلَفَ بِالْأَمَانَةِ فَلَيْسَ مِنَّا».

¹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3251).

²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3253).

«아마나(신뢰)를 두고 맹세하는 자는 우리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¹ 아부 다우드 전승.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أَخَوْفُ مَا أَخَافُ عَلَيْكُمُ الشِّرْكَ الْأَصْغَرَ، فَسُئِلَ عَنْهُ فَقَالَ: الرَّيَاءُ.»

«내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은 쉬르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시입니다.»²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ا تَقُولُوا: مَا شَاءَ اللَّهُ وَشَاءَ فُلَانٌ، وَلَكِنْ قُولُوا مَا شَاءَ اللَّهُ ثُمَّ شَاءَ فُلَانٌ.»

«'하나님과 아무개가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후 아무개가 원한 대로'라고 말하십시오.»³ 안-나싸이가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하기를, 한 남자가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하나님과 당신께서

¹ 압둘라를 통해 알-부카리(2679번), 무슬림(1646번) 전승.

² 아흐마드 전승, 번호 (5/428).

³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4980).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하자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أَجَعَلْتَنِي لِلَّهِ نِدَاءً، بَلَّ مَا شَاءَ اللَّهُ وَحْدَهُ».

«당신은 나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원하시는 대로'라고 해야 합니다.»¹

이 하디스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타우히드(하나님의 단일성)의 영역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공동체에게 크고 작은 쉬르크를 경고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징벌 및 그분의 진노의 원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받기를 깊이 염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최고의 보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그분께서는 널리 알리시고 경고하셨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복들을 위해 조언하셨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그분께 영원한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¹ 이븐 마자 전승, 번호 (2117).

핫즈 순례자와 하나님의 안전한 도시 및 존귀한 사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도시에 거주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규정하신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양한 종류의 쉬르크와 죄악들을 경고하며, 이를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과하신 전달과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إِذْ أَخَذَ اللَّهُ مِيثَاقَ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لَتُبَيِّنُنَّهُ لِلنَّاسِ وَلَا تَكْتُمُونَهُ...﴾

하나님께서 성서를 받은 자들과 약속을 맺으시며, 반드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숨기지 말라 하셨느니라... [알 이므란: 187].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내세보다 현세를 우선시하여 진리를 숨기는 성서의 백성 중 억압하는 자들의 행태를 따르지 않도록 이 공동체의 학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وَمَنْ أَحْسَنُ قَوْلًا مِّمَّنْ دَعَا إِلَى اللَّهِ وَعَمِلَ صَالِحًا وَقَالَ إِنَّنِي مِنَ الْمُسْلِمِينَ﴾ 33]

하나님께서 부르며 선행을 실천하고, 실로 저는
무슬림들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보다 더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푸실라트:
33], 그리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قُلْ هَذِهِ سَبِيلِي أَدْعُو إِلَى اللَّهِ عَلَى بَصِيرَةٍ أَنَا وَمَنِ اتَّبَعَنِي وَسُبْحَانَ اللَّهِ وَمَا أَنَا
مِنَ الْمُشْرِكِينَ﴾ 108]

말하라, 이것이 나의 길이라. 나는 확고한
통찰력으로 하나님께로 부르나니,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는 자들
중에 속하지 않노라. [유수프: 108].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 دَلَّ عَلَى خَيْرٍ فَلَهُ مِثْلُ أَجْرِ فَاعِلِهِ»

«선을 가리켜 준 자는 그것을 행한 자와 같은
보상을 얻습니다.»¹

«لَأَنْ يَهْدِيَ اللَّهُ بِكَ رَجُلًا وَاحِدًا خَيْرٌ لَّكَ مِنْ حُمْرِ النَّعَمِ»

¹ 무슬림 전승, 번호 (1893).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신에게는 붉은 낙타 무리보다 더 좋습니다.»¹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꾸란 구절과 하디스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믿음을 갖춘 자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부르는 일에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종복들을 구원의 원인으로 이끌고 파멸의 원인들을 경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번덕스러운 욕망이 만연하고, 파괴적인 사상과 현혹하는 구호가 퍼져 있으며, 인도의 전달자는 줄어들고 무신론과 방종을 부추기는 자들이 많아진 이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뿐이며, 지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¹ 알-부카리(3009번), 무슬림(2406번) 전승.

항목

순종(경배)의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의 권장됨에 대하여

하즈 순례자들은 마카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과 순종,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고, 예배(살라)와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람(성역) 구역에서는 선행에 대한 보상이 배가 되며, 그곳에서의 죄악은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해 하나님께 자비와 평화을 비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즈 순례자들이 마카를 떠나고자 할 때는 성전과의 마지막 인사가 되도록 성전을 도는 고별 따와프(따와프 알와다으)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월경 중인 여성과 산후 출혈 중인 여성은 고별 따와프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أَمَرَ النَّاسَ أَنْ يَكُونَ آخِرُ عَهْدِهِمْ بِالْبَيْتِ، إِلَّا أَنَّهُ خُفِّفَ عَنِ الْمَرْأَةِ الْحَائِضِ»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 인사가 그 집(카으바)과 함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다만 월경 중인 여성에게는 그것이 경감되었습니다.»¹

하나님의 집(카으바)과의 작별을 마치고 성원을 나서고자 할 때는 앞을 향해 걸어서 나갑니다. 뒷걸음질을 쳐서 걷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나 그의 교우들로부터 전해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진 이단(비드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مَنْ عَمِلَ عَمَلًا لَيْسَ عَلَيْهِ أَمْرُنَا فَهُوَ رَدٌّ».

«우리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는 거부됩니다.»²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إِيَّاكُمْ وَمُحَدَّثَاتِ الْأُمُورِ، فَإِنَّ كُلَّ مُحَدَّثَةٍ بِدْعَةٍ، وَكُلَّ بِدْعَةٍ ضَلَالَةٌ».

¹ 알-부카리(1755번), 무슬림(1328번) 전승.

²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들을 경계하십시오. 실로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단(비드아)이며, 모든 이단은 방황입니다.»¹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종교 안에서 흔들림 없기를 구하며, 그것에 어긋나는 것들로부터 안전하기를 구합니다. 실로 그분은 너그럽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항목

방문(지야라)의 규정과 예절에 대하여

하즈 전이나 후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을 방문하는 것은 순나입니다. 두 쇠히흐 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صَلَاةٌ فِي مَسْجِدِي هَذَا خَيْرٌ مِنْ أَلْفِ صَلَاةٍ فِيْمَا سِوَاهُ إِلَّا الْمَسْجِدَ الْحَرَامَ».

¹ 자비르 빈 압둘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867).

«나의 이 성원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알마쓰지드 알하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천 번의 예배보다 더 좋습니다.»¹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صَلَاةٌ فِي مَسْجِدِي هَذَا أَفْضَلُ مِنْ أَلْفِ صَلَاةٍ فِيْمَا سِوَاهُ إِلَّا الْمَسْجِدَ الْحَرَامَ»

«나의 이 성원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알마쓰지드 알하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천 번의 예배보다 더 훌륭합니다.»² 무슬림 전승, 압둘라 빈 아즈주바이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صَلَاةٌ فِي مَسْجِدِي هَذَا أَفْضَلُ مِنْ أَلْفِ صَلَاةٍ فِيْمَا سِوَاهُ إِلَّا الْمَسْجِدَ الْحَرَامَ، وَصَلَاةٌ فِي الْمَسْجِدِ الْحَرَامِ أَفْضَلُ مِنْ مِائَةِ صَلَاةٍ فِي مَسْجِدِي هَذَا»

«나의 이 성원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알마쓰지드 알하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천 번의

¹ 알-부카리(1190번), 무슬림(1394번) 전승.

² 무슬림 전승, 번호 (1395).

예배보다 더 훌륭하며, 알마쓰지드 알하람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나의 이 성원에서의 백 번의 예배보다 더 훌륭합니다.»¹ 아흐마드, 이븐 쿠자이마, 이븐 힌반 전승.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صَلَاةٌ فِي مَسْجِدِي هَذَا أَفْضَلُ مِنْ أَلْفِ صَلَاةٍ فِيْمَا سِوَاهُ، إِلَّا الْمَسْجِدَ الْحَرَامَ،
وَصَلَاةٌ فِي الْمَسْجِدِ الْحَرَامِ أَفْضَلُ مِنْ مِائَةِ أَلْفِ صَلَاةٍ فِيْمَا سِوَاهُ»

«나의 이 성원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알마쓰지드 알하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천 번의 예배보다 더 훌륭하며, 알마쓰지드 알하람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다른 어떤 곳에서의 십만 번의 예배보다 더 훌륭합니다.»² 아흐마드, 이븐 마자 전승. 이와 같은 의미의 하디스는 많습니다.

방문자가 성원에 도착하면 들어갈 때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 것이 권장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¹ 아흐마드 전승, 번호 (4/5).

² 이븐 마자 전승, 번호 (1406).

사도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저는 위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존귀한 얼굴(와즈흐), 그분의 영원한 권능에 의지하여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당신의 자비의 문을 열어주소서(비쓰밀라 왓살라투 왓살라무 알라 라쉴릴라 아우두 빌라힐 아딤 와비와즈히힐 카림 와쉴따니힐 까딤 미낫샤이따니르 라짐 알라훔마프타흐 리 아브와바 라흐마티카)."

이는 다른 모든 성원에 들어갈 때 말하는 것과 같으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에 들어가기 위한 특정한 찬양(디크르)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현세와 내세의 선함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이 예배를 존귀한 라우다(라우다 앓-샤리파)에서 드린다면 더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ا بَيْنَ بَيْتِي وَمَنْبَرِي رَوْضَةٌ مِنْ رِيَاضِ الْجَنَّةِ».

«내 집과 내 민바르(설교단) 사이의 공간은 천국의 정원들 중 하나의 정원(라우다)입니다.»¹ 예배를 마친 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과 두 교우인 아부 바크르,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을 향해 서서 예의를 갖추고 목소리를 낮춘 뒤,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인사를 건네며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당신께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축복(바라카)이 있기를(앗쌀라무 알라이카 야 라쉴랄라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이라고 말합니다. 쉰 아부 다우드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훌륭한(하싼) 전승 경로를 통해

¹ 압둘라 빈 자이드 알마지니를 통한 알-부카리(1195번), 무슬림(1390번) 전승.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에 근거합니다:

«مَا مِنْ أَحَدٍ يُسَلِّمُ عَلَيَّ إِلَّا رَدَّ اللَّهُ عَلَيَّ رُوحِي حَتَّى أَرُدَّ عَلَيْهِ السَّلَامَ».

«누구든지 내게 인사를 건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돌려주시어 내가 그 인사에 답하게 하십니다.»¹ 방문자가 인사하며 "오 하나님의 선지자이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오 하나님 피조물 중 최고의 분이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오 사도들의 주인이자 경외하는 자들의 이مام이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저는 당신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아마나(신뢰)를 완수하셨으며, 공동체를 위해 조언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분투(지하드)를 하셨음을 증언합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¹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2041).

베푸시길)을 위해 살라(자비)를 빌고 기원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실천하여,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을 향한 살라와 쌀람을 함께 비는 것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إِنَّ اللَّهَ وَمَلَائِكَتَهُ يُصَلُّونَ عَلَى النَّبِيِّ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صَلُّوا عَلَيْهِ وَسَلِّمُوا
 تَسْلِيمًا 56)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선지자에게 축복을 내리나니, 오 믿는 자들이여,
 너희도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평화의
 기도를 많이 하라. [알-아흐잡: 56]. 그다음 아부
 바크르와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들을 위해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는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두 교우에게 인사를 건넬 때
 대개 다음 말 이상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오

아부 바크르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오 아버지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앗쌀라무 알라이카 야
라쉴랄라 앗쌀라무 알라이카 야 아바 바크르
앗쌀라무 알라이카 야 아바타흐)." 그런 다음
돌아갔습니다.

이 방문은 오직 남성들에게만 특별히 규정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어떤 무덤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하셨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لَعَنَ رُؤَاةِ الْقُبُورِ مِنَ النِّسَاءِ وَالْمُتَخَذِينَ عَلَيْهَا الْمَسَاجِدَ وَالسُّرُجَ».

«여성 무덤 방문객들과 그 무덤들 위에 성원과
등불을 짓는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¹

그러나 다른 모든 성원들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원하기
위해 마디나로 향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하디스들에 근거하여 모든 이에게 허용됩니다.

¹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3236).

방문자는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에서 다섯 번의 의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찬양(디크르)과 기원, 자발적 예배(나필라)를 많이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막대한 보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존귀한 라우다에서 자발적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 미덕에 대해 앞서 언급된 쉐히흐(진본) 하디스, 즉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다음 말씀에 근거합니다:

«مَا بَيْنَ بَيْتِي وَمَنْبَرِي رَوْضَةٌ مِنْ رِيَاضِ الْجَنَّةِ».

«내 집과 내 민바르 사이의 공간은 천국의 정원들 중 하나의 정원(라우다)입니다.»¹

의무 예배(파리다)의 경우 방문자와 다른 모든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가 첫 번째 대열(샹프)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끼블라 쪽으로 확장된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첫

¹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번째 대열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와히흐(진본) 하디스들에 근거합니다. 다음과 같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이 그 예입니다:

«لَوْ يَعْلَمُ النَّاسُ مَا فِي النِّدَاءِ وَالصَّفِّ الْأَوَّلِ ثُمَّ لَمْ يَجِدُوا إِلَّا أَنْ يَسْتَهْمُوا عَلَيْهِ لَاسْتَهْمُوا»

«만약 사람들이 부름(아단)과 첫 번째 대열에 있는 보상을 알게 되고, 제비를 뽑는 것 외에 그것을 얻을 방법이 없다면 분명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¹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또한 교우들에게 하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تَقَدَّمُوا فَأَتَمُّوا بِي وَلِيَأْتَكُمْ بِكُمْ مِنْ بَعْدَكُمْ، وَلَا يَزَالُ الرَّجُلُ يَتَأَخَّرُ عَنِ الصَّلَاةِ حَتَّى يُؤْخِرَهُ اللَّهُ»

«앞으로 나아가 나를 따르시고, 여러분 뒤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을 따르게 하십시오. 예배에서 계속

¹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438).

뒤로 미루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뒤처지게 하실 것입니다.»¹ 무슬림 전승.

아부 다우드가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훌륭한(하싼) 전승 경로로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ا يَزَالُ الرَّجُلُ يَتَأَخَّرُ عَنِ الصِّفِّ الْمَقْدَمِ حَتَّى يُؤَخَّرَهُ اللَّهُ فِي النَّارِ».

«앞 대열에서 계속 물러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지옥으로 미루실 것입니다.»²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이 확증되었습니다:

«أَلَا تَصُفُّونَ كَمَا تَصُفُّ الْمَلَائِكَةُ عِنْدَ رَبِّهَا؟ قَالُوا: يَا رَسُولَ اللَّهِ، وَكَيْفَ تَصُفُّ الْمَلَائِكَةُ عِنْدَ رَبِّهَا؟ قَالَ: يَتِمُّونَ الصُّفُوفَ الْأُولَى، وَيَتَرَاصُونَ فِي الصِّفِّ»

«천사들이 주님 곁에서 대열을 맞추듯 여러분도 대열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천사들은 주님 곁에서 어떻게 대열을

¹ 알-부카리(615번), 무슬림(437번) 전승.

² 자비르 빈 싸무라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430).

맞습니까?"라고 묻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앞 대열부터 채우고, 대열 안에서 서로 틈 없이 뺄뺄하게 섭니다.»¹ 무슬림 전승.

이와 같은 의미의 하디스는 많으며, 이는 확장 전후를 불문하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과 다른 모든 곳에 일반화되어 적용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교우들에게 대열의 오른쪽을 채우도록 권장하셨음이 쇠히흐(진본) 전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의 성원 구조에서 대열의 오른쪽은 라우다 바깥에 위치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대열과 대열의 오른쪽에 신경 쓰는 것이 존귀한 라우다에 신경 쓰는 것보다 우선하며, 이 둘을 지키는 것이 라우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과 관련된 하디스들을 숙고해 본 자라면 이 사실이

¹ 아부 다우드 전승(679번), 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열에서 계속 물러나는 무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지옥으로 미루실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 방(후즈라)을 쓰다듬거나, 입 맞추거나, 그 주위를 도는 따와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건한 쌀라프 살리흐(선조)들로부터 전해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되는 이단(비드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거나, 고난을 덜어달라거나, 환자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는 것이며, 죽은 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이자 다른 존재를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다음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홀로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규정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증언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중재(샤파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오직 그분께만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قُلْ لِلَّهِ الشَّفَاعَةُ جَمِيعًا...﴾

말하라, 중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 [앗-주마르: 44],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저를 위한 중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천사들과 당신을 믿는 종복들을 통해 저를 위한 중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저의 일찍 죽은 자식들을 통해 저를

위한 중재를 허락하소서" 등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반면 죽은 자들에게는 중재나 그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선지자이든 선지자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율법 수여자가 예외로 둔 것을 제외하고 죽은 자의 행위는 이미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쇄히흐 무슬림 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إِذَا مَاتَ ابْنُ آدَمَ انْقَطَعَ عَمَلُهُ إِلَّا مِنْ ثَلَاثٍ: صَدَقَةٍ جَارِيَةٍ، أَوْ عِلْمٍ يُنْتَفَعُ بِهِ، أَوْ وَلَدٍ صَالِحٍ يَدْعُو لَهُ».

«아담의 자손이 죽으면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의 모든 행위는 끊어집니다. 영속하는 자선(쇄다까 자리야), 유익하게 쓰이는 지식, 그를 위해 기원하는 의로운 자식입니다.»¹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살아계실 때와 부활의 날에는

¹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1631).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므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주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자를 위해 기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는 그것이 알려진 사실이며, 이것이 그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분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슬림은 형제에게 "나를 위해 주님께 이러저러한 중재를 해 주십시오" 즉,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말을 들은 자는 요청받은 사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원하며 형제를 위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후에야 누구든 중재할 수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نْ ذَا الَّذِي يَشْفَعُ عِنْدَهُ إِلَّا بِإِذْنِهِ...}

...그분의 허락 없이 그분 곁에서 중재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알-바까라: 255].

죽음의 상태는 사망 전 인간의 상태나 부활 이후의 상태와 동일하게 간주해서는 안 되는 특수한 상태입니다. 율법 수여자가 예외로 둔 것을 제외하고는 죽은 자의 행위가 끊어지고 자신의 행위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 중재를 요구하는 것은 율법 수여자가 예외로 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서거하신 후 순교자들의 삶보다 더 완벽한 바르자크(무덤 속 세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 전의 삶이나 부활의 날의 삶과 같은 종류가 아니며,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그 본질과 형태를 아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고귀한 하디스에서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مَا مِنْ أَحَدٍ يُسَلِّمُ عَلَيَّ إِلَّا رَدَّ اللَّهُ عَلَيَّ رُوحِي حَتَّى أُرَدَّ عَلَيْهِ السَّلَامُ»

«누구든지 내게 인사를 건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돌려주시어 내가 그 인사에 답하게 하십니다.»¹

이는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그분의 영혼이 육신을 떠났으나, 누군가 인사를 건넬 때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꾸란과 순나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죽음을 증명하는 텍스트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자크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언급된 바르자크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وَلَا تَحْسَبَنَّ الَّذِينَ قُتِلُوا فِي سَبِيلِ اللَّهِ أَمْوَاتًا بَلْ أَحْيَاءٌ عِنْدَ رَبِّهِمْ يُرْزَقُونَ﴾ (169)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당한 자들을 죽은 자라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주님 곁에 살아있으며 일용할 양식을 부여받고 있노라. [알 이므란: 169].

¹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2041).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 혼란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향해 쉬르크를 행하도록 부추기는 자들이 많아 그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모든 무슬림이 그분의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일부 방문자들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 곁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곳에 오래 서 있는 행위는 율법에 어긋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목소리 위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서로에게 큰 소리로 말하듯 그분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해 그분 곁에서 목소리를 낮추도록 장려하셨기 때문입니다: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رْفَعُوا أَصْوَاتَكُمْ فَوْقَ صَوْتِ النَّبِيِّ وَلَا تَجْهَرُوا لَهُ بِالْقَوْلِ
كَجَهْرِ بَعْضِكُمْ لِبَعْضٍ أَن تَحْبَطَ أَعْمَالُكُمْ وَأَنتُمْ لَا تَشْعُرُونَ 2 إِنَّ الَّذِينَ يَغُصُّونَ

أَصْوَاتَهُمْ عِنْدَ رَسُولِ اللَّهِ أُولَئِكَ الَّذِينَ امْتَحَنَ اللَّهُ قُلُوبَهُمْ لِلتَّقْوَى لَهُمْ مَغْفِرَةٌ وَأَجْرٌ عَظِيمٌ ﴿3﴾

오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목소리를 선지자의 목소리 위로 높이지 말며, 너희끼리 큰 소리로 말하듯 그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의 행위가 허사가 될까 두려우니라.

실로 하나님의 사도 곁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경외심으로 시험하신 자들이니, 그들에게는 용서와 거대한 보상이 있노라. [알-후주라트: 2-3].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 곁에 오래 서 있는 것과 인사를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은 혼잡을 유발하고 잦은 소음과 큰 목소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위해 이 명확한 구절들을 통해 규정하신 바와 어긋납니다.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살아계실 때나 죽은 후나 모두 존경받아야 하므로, 믿는 자는

그분의 무덤 곁에서 율법적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방문자들이나 다른 이들이 그분의 무덤 곁에서 무덤을 마주 보고 두 손을 든 채 기원하려 애쓰는 행동 역시 하나님의 사도의 교우들과 그들을 훌륭히 따른 경건한 쌀라프 살리흐(선조)들의 방식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단(비드아)에 속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فَعَلَيْكُمْ بِسُنَّتِي وَسُنَّةِ الْخُلَفَاءِ الرَّاشِدِينَ الْمَهْدِيِّينَ مِنْ بَعْدِي، تَمَسَّكُوا بِهَا وَعَصُوا عَلَيْهَا بِالنَّوَاجِذِ، وَإِيَّاكُمْ وَمُحَدَّثَاتِ الْأُمُورِ، فَإِنَّ كُلَّ مُحَدَّثَةٍ بِدْعَةٌ وَكُلَّ بِدْعَةٍ ضَلَالَةٌ».

«여러분은 내 순나와 내 뒤를 잇는 올바로 인도된 정통 칼리파들의 순나를 따르십시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어금니로 꼭 깨무십시오. 새롭게 만들어진 일들을 경계하십시오. 실로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단(비드아)이며, 모든 이단은 방황입니다.»¹

¹ 알이르바드 빈 사리야의 하디스를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4607).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 أَحْدَثَ فِي أَمْرِنَا هَذَا مَا لَيْسَ مِنْهُ فَهُوَ رَدٌّ»

«우리의 이 일(종교)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자는 거부됩니다.»¹

«مَنْ عَمِلَ عَمَلًا لَيْسَ عَلَيْهِ أَمْرُنَا فَهُوَ رَدٌّ»

«우리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는 거부됩니다.»²

알리 빈 알후싸인 자인 알아비딘(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은 한 남자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 곁에서 기원하는 것을 보고 그를 제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들은 하디스를 하나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¹ 앞서 출처가 언급됨.

² 앞서 출처가 언급됨.

«لَا تَتَّخِذُوا قَبْرِى عِيْدًا، وَلَا بُيُوتَكُمْ قُبُورًا، وَصَلُّوا عَلَيَّ، فَإِنَّ سَلَامِي يَبْلُغُكُمْ يَبْلُغُنِي أَيْنَمَا كُنْتُمْ».

«내 무덤을 축제의 장(이드)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집을 무덤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에게 살라를 빌어주십시오. 실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쌀람 인사는 나에게 닿습니다.»¹

일부 방문자들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인사를 건넬 때 예배하는 자처럼 오른손을 왼손 위 가슴이나 그 아래에 얹는 자세를 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인사할 때나 다른 왕이나 지도자 등에게 인사할 때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하피즈 이븐 하자르(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가 파트흐 에서 학자들의 말을 인용했듯이, 이는 낮춤과 복종, 경배의 자세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¹ 자인 알아비딘의 전승은 셰이크가 알하피즈 알마끄디씨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그는 이야기 없이 하디스만 전했습니다. 아흐마드의 무쓰나드 (제2권/367쪽) 전승.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경건한 쌀라프 살리흐(선조)들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이 사안은 명백하고 뚜렷합니다.

그러나 광신과 변덕스러운 욕망, 맹목적인 추종, 그리고 경건한 쌀라프 살리흐(선조)의 길로 부르는 자들에 대한 나쁜 편견에 휩싸인 자의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인도와 성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실로 영광스러운 그분은 요청을 들어주시는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일부 사람들이 멀리서 존귀한 무덤을 마주 보고 입술을 움직여 인사를 하거나 기원하는 행위 역시 모두 앞서 언급된 새롭게 만들어진 일(비드아)과 같은 부류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자신의 종교 안에 새롭게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친밀함과 순수함보다는 오히려 멀어짐에 가깝습니다. 이맘 말릭(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은 이와

같은 행위들을 부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마지막 세대는 처음 세대가
바로잡혔던 방식이 아니고서는 결코 바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¹

이 공동체의 처음을 바로잡은 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올바르게 인도된 정통 칼리파들, 그리고
흡족함을 얻은 교우들과 그들을 훌륭히 따른
자들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마지막 세대 역시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 위를 걷지 않는 한 결코 바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구원,
행복, 영광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성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그분은 너그럽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¹ 사탄의 덫에 걸린 자들을 위한 구원 (제1권/363쪽).

주의 사항

선지자(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 방문에 대한 규정

일부 일반인들이나 그와 비슷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핫즈의 조건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을 방문하거나 그 근처에 있는 자에게 권장되는 사항일 뿐입니다.

마디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무덤을 방문할 목적으로 여행 짐을 꾸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존귀한 성원을 방문할 목적으로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은 순나입니다. 그가 성원에 도착하면 존귀한 무덤과 두 교우의 무덤을 방문하며,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과 두 교우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을 방문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쇠히흐 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لَا تُسَدُّ الرَّحَالُ إِلَّا إِلَى ثَلَاثَةِ مَسَاجِدَ: الْمَسْجِدِ الْحَرَامِ، وَمَسْجِدِي هَذَا، وَالْمَسْجِدِ
الْأَقْصَى».

«세 곳의 성원, 즉 알마쓰지드 알하람, 나의 이 성원,
알아끄와 성원 외에는 (예배를 위한) 여행 짐을
꾸리지 마십시오.»¹

만약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이나 다른 이의 무덤을 목적으로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이 규정된 것이었다면, 그분께서
공동체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 훌륭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가장 충실하게 조언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며,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명백한 전달을 마치셨고,
공동체를 모든 선으로 이끌으셨으며,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¹ 아부 후라이라를 통한 알-부카리(1189번), 무슬림(1397번) 전승.

하물며 세 곳의 성원 이외의 목적을 위해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을 경고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لَا تَتَّخِذُوا قَبْرِ عِيْدًا، وَلَا بُيُوتَكُمْ قُبُورًا، وَصَلُّوا عَلَيَّ، فَإِنَّ صَلَاتَكُمْ تَبْلُغُنِي حَيْثُ كُنْتُمْ»

«내 무덤을 축제의 장(이드)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집을 무덤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에게 살라를 빌어주십시오. 실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살라 기도는 나에게 닿습니다.»¹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이 율법에 허용된다는 주장은 결국 그곳을 축제의 장(이드)으로 만들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두려워하셨던 부작용, 즉 지나침과 과도한 찬양을 낳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을

¹ 앞서 출처가 밝혀짐.

방문하기 위해 여행 집을 꾸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합당하다고 믿은 탓에 이러한 잘못에 빠졌습니다.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을 향해 여행 집을 꾸리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로 삼는 하디스들은 전승 경로가 다이프(약함)인 하디스들이며, 오히려 마우두으(날조됨)인 하디스들입니다. 알다라꾸뜨니, 알바이하끼, 알하피즈 이븐 하자르 등 하디스 학자(하피즈)들이 그 연약함을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 곳의 성원 이외의 목적을 위해 여행 집을 꾸리는 것을 금지하는 쇠히흐(진본) 하디스들을 이런 것들로 반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 독자들이여, 다음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마우두으(날조됨)인 하디스들 중 일부입니다. 이를 알아두고 이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첫째: «하즈를 수행하고도 나를 방문하지 않은 자는 나를 홀대한 것입니다.»

둘째: «내가 죽은 후 나를 방문한 자는 마치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방문한 것과 같습니다.»

셋째: «같은 해에 나와 내 조상 이브라힘을 방문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곁에서의 천국을 보장합니다.»

넷째: «내 무덤을 방문한 자에게는 나의 중재가 주어집니다.»

이 하디스들과 이와 유사한 것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확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알하피즈 이븐 하자르가 앓탈키스 에서 대부분의 전승들을 언급한 후 말했습니다: "이 하디스의 전승 경로(따리끄)들은 모두 다이프(약함)입니다."

알하피즈 알우까일리가 말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쇠히흐(진본)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셰이크 알이슬람 이븐 타이미야(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이 하디스들이 모두

마우두으(날조됨)라고 단언했습니다. 지식과 기억, 학식에 있어 그로써 당신에게는 충분합니다.

만약 그 중 조금이라도 확증된 것이 있었다면,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이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공동체에게 그것을 밝히며, 그들을 그것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규정들과 그분께서 종복들을 위해 제정하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위해 가장 충실히 조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율법에 규정된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설령 그중 조금이라도 샤희흐(진본)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디스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오로지 무덤만을 목적으로 여행 집을 꾸리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합법적인 방문으로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항목

꾸바 성원과 알바끼의 방문의 권장됨에 대하여

마디나 방문자는 꾸바 성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예배(살라)를 드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쇠히흐 에서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에 다음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كَانَ النَّبِيُّ ﷺ يَزُورُ مَسْجِدَ قُبَاءٍ رَاكِبًا وَمَاشِيًا وَيُصَلِّي فِيهِ رَكْعَتَيْنِ».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타고 가시거나 걸어서 꾸바
성원을 방문하셨으며, 그곳에서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리셨습니다.»¹

샤흘 빈 후나이프(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¹ 알-부카리(1193번), 무슬림(1399번) 전승.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 تَطَهَّرَ فِي بَيْتِهِ ثُمَّ أَتَى مَسْجِدَ فُبَاءٍ فَصَلَّى فِيهِ صَلَاةً كَانَ لَهُ كَأَجْرِ عُمْرَةٍ».

«자신의 집에서 청결을 유지한 후 꾸바 성원에 와서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우므라의 보상과 같은 보상이 주어집니다.»¹

알바끼으의 무덤들과 순교자들의 무덤들, 그리고 함자(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곳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 기원하셨으며,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زُورُوا الْقُبُورَ فَإِنَّهَا تَذَكِّرُكُمْ بِالْآخِرَةِ».

«무덤들을 방문하십시오. 실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세를 상기시켜 줍니다.»² 무슬림 전승.

¹ 이븐 마자 전승, 번호 (1412).

² 무슬림 전승, 번호 (976).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교우들이 무덤을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أَهْلَ الدِّيَارِ مِنَ الْمُؤْمِنِينَ وَالْمُسْلِمِينَ، وَإِنَّا إِن شَاءَ اللَّهُ بِكُمْ لَاجِفُونَ، نَسْأَلُ اللَّهَ لَنَا وَلَكُمْ الْعَافِيَةَ».

«이곳에 머무는 믿는 자들과 무슬림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도 당신들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당신들의 안녕을 구합니다.»¹ 무슬림이 쏴라이만 빈 부라이다가 그의 아버지를 통해 전한 하디스로 전승했습니다.

앗-티르미디가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하기를, 그가 말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마디나의 무덤들을 지나가시며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يَا أَهْلَ الْقُبُورِ، يَغْفِرُ اللَّهُ لَنَا وَلَكُمْ، أَنْتُمْ سَلَفُنَا وَنَحْنُ بِالْآخِرِ».

¹ 무슬림 전승, 번호 (975).

«무덤에 머무는 자들이여,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앞선 자들이며 우리는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¹

이 하디스들을 통해 율법에 부합하는 무덤 방문의 목적은 내세를 상기하고 죽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그들을 위해 기원하고 자비를 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덤 곁에서 기원할 목적으로, 혹은 그 곁에 머무르거나,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거나 환자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들을 통하거나 그들의 지위를 빌어 하나님께 요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부정되는 이단(비드아)적 방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으셨으며, 경건한 쌀라프 살리흐(선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¹ 앳-티르미디 전승, 번호 (1035).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금지하신 망언(후즈르)에 속합니다:

«زُورُوا الْقُبُورَ، وَلَا تَقُولُوا هُجْرًا».

«무덤들을 방문하되 망언을 하지 마십시오.»¹

언급된 이 일들은 모두 이단(비드아)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등급은 다릅니다. 그중 일부는 무덤 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 죽은 자의 권리나 지위 등을 빌어 그분께 요구하는 것처럼 이단이되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반면 죽은 자들에게 기원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처럼 가장 큰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히 설명된 바 있으니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님께 성공과 진리로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그분만이 성공과 인도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

¹ 이븐 부라이다가 그의 아버지를 통해 전한 무슬림 전승, 번호 (977).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고 그분 외에 주님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남기고자 했던 내용을 마칩니다. 처음과 끝의 찬미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이시며 피조물 중 최고의 선택을 받으신 무함마드, 그리고 그의 가족과 교우들, 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훌륭히 따르는 자들에게 살라(축복)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الفهرس

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핫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3
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핫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3
저자 서문	3
항목	7
핫즈와 우므라의 의무 및 신속한 수행에 대한 증거들	7
항목	13
죄로부터의 회개 의무와 부당함의 청산	13
항목	23
순례자가 미까트에 도착했을 때 행해야 할 일	23
항목	33
장소적 미까트와 그 지정에 대하여	33
항목	43
핫즈의 달이 아닌 시기에 미까트에 도착한 자의 규정	43
항목	49
어린이의 핫즈가 이슬람의 의무 핫즈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49
항목	54
이흐람 시 금지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	54

항목	66
마카 입성 시 핫즈 순례자가 해야 할 일과 알마쓰지드 알하람에 들어간 후 따와프 및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 ...	66
항목	82
둘hit자 달 8일에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하는 것과 미나로 향하는 것에 대한 규정.....	82
항목	116
희생 제를 바치는 날 핫즈 순례자가 행해야 할 최선의 것들에 대한 설명	116
항목	127
타맛투으를 하는 자와 까린(결합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희생 제물(담)의 의무에 대하여.....	127
항목	131
핫즈 순례자 등에게 부과된 선을 권장할 의무에 대하여...	131
항목	146
순종(경배)의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의 권장됨에 대하여.....	146
항목	148
방문(지야라)의 규정과 예절에 대하여.....	148
주의 사항	173
선지자(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 방문에 대한 규정	173

항목	179
꾸바 성원과 알바끼르 방문의 권장됨에 대하여.....	179

ko396v3.1 - 04/09/2026